



## 홈커밍데이, 미주 동문들 '귀한 손님' 대접

2024년 10월 20일 홈커밍데이,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동했던 내 청춘을 생각하며 가는 교정이다.

60, 50, 40, 30년 전에 각자의 단과대학을 걸었던 교정을 생각하며 지금의 관악 교정을 걷는다.

특히,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한국 방문을 하면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님의 오찬 환영을 받으며, 또 귀빈 대접을 배풀어 주심에 얼마나 축축한 마음으로 서울대 입구에 들어서는지 교포들만이 느끼는 애뜻한 감정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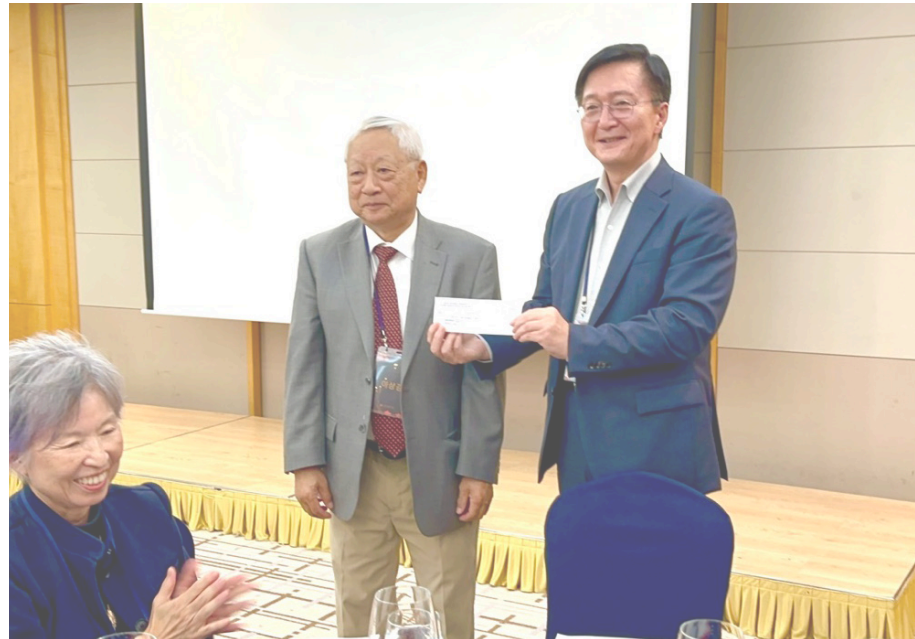
서울대 가족의 날 행사, 홈커밍데이! 그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다닌 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얼마나 큰 교육이 될까? 최고라고 자부심 갖는 서울대 부모의 자녀, 나도 커서 그렇게 되야지 하고 다짐시켜 주는 뜻깊은 행사이다.

우리는 아침 10시 30분 유홍림 총장님께서 그리고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오찬 행사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 식당에 미주 각지에서 온 66명의 동문님들이 참석했다.

당일 예약 없이 참석한 몇 분의 동문들이 있어 주최측에서 매우 당황해 했으며 그로 인해 서울대 단과대 학장 몇 분이 자리를 내주어 너무도 황당한 미안함을 금할 길 없었다.

다음 부터는 꼭 예약을 해주는 동문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빈 소개와 유홍림 총장 및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 환영사 및 건배사/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이 미주 동문들이 기부한 서울대 발전기금 SNU FUND 중 3만불을 유홍림 서울대 총장에게 전달했다.

### 이상강 회장, 유홍림 총장에게 발전기금 3만불 전달 미주 각지 동문 66명 참석 환대 받으며 모교 돌아봐

서울대 미주동창회 이상강 회장님 감사 인사 /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 김기현 부이사장 인사 말씀과 미주 12대 오인환 회장님의 건배사도 곁들였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17대 이상강 회장님의 인사말씀이시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 동문님들께 멋

진 오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홍림 총장님과 김종섭 총동창회 회장님 이하 준비해 주신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동문님들이 서울대 총장님을 뵈면서 열심히 더욱 발전 시키려는 모습을 보면서 후배들을 양성하시는 노고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

려 나오게 하는 귀중하고 뜻깊은 자리입니다. 홈커밍데이는 정말 졸업생들에게는 모교의 어머니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행사입니다. 서울대 미주동문들이 모교 발전기금 회비란에 기부하시는 기금은 동문님들의 정성의 마음을 드리는 기금입니다. 액수는 한국 동문들에 비하면 적지만 그 마음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기금 중 일부 3만불을 총장님 모금 사업에 보탬으로 드립니다. 뜻깊은 사업에 동참하게됨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상강 회장님은 인사 말씀 후에 유홍림 총장 SNU FUND에 서울대 미주동문들이 낸 발전기금으로 3만불을 기부했다.

모두 정문으로 이동하여 단체사진을 찍었는데 총장님과 총동창회 회장님, 미주동창회 회장님이 뒷편에 계셔서 사진에 안보여 먼저 자리를 배려하지 못해 죄송함이 많이 있었다.

교정은 버스를 타고 둘러봤는데 재학생들이 툭툭말랑 총명하게 설명해 주었다.

버들골에는 음식 부스가 장엄하게 느껴질 정도로 송우엽 사무총장님의 땀이 느껴졌다. 서울대의 위상이 한껏 돋보였다. 전날 먼저 준비된 부스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실 때 즐겁게 총동창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서울대 졸업생이기에 나오는 정열로 느껴졌다.

취재 = 백옥자(음대 71 · 미주동창회 총무국장) <2면 홈커밍으로 계속>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이 모교를 찾은 미주 동문들을 환영하며 축배를 하고 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모교를 찾은 미주 동문들을 위한 오찬을 열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 미주 동창회 SNU포럼 강연자 추천받습니다

워싱턴주 동창회가 매달 줌으로 주최  
지역사회 교양 강좌서 미 전역 확대

서울대 미주 동창회가 미주 동문들의 지적 욕구와 학문적 발전을 지향하며 운영중인 SNU포럼의 내년도 강연자를 모집하고 있다.

SNU포럼을 지난 2021년부터 4년째 운영 중인 시애틀 지부 김재훈 동문은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2024 SNU포럼이 마지막 11월 세미나만 남겨두고 있다”며 “매년 8월과 12월만 빼고 10회 개최되는 포럼이 2025년 세미나 강사를 초청하기 위한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SNU포럼은 이제 시애틀 지역 신문에 안내가 될 정도로 자리를 잡았고 포럼 내용이 동창회보에 지상중계 되는 등 동창회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김 동문은 “SNU포럼의 운영에는 서울대 동창회 각 지부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훌륭한 분들을 강연자로 모실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SNU포럼은 매달 2번째 토요일에 미 서부시간으로 오전10시에 시작해 1~2시간 동안 강연자가 주제 강연하고 참관자들과 질문과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특히 줌으로 진행돼 미 전역의 서울대 동문과 게스트들이 참가하는 매우 수준있는 포럼으로 자리잡은 상태.

주요 세미나는 주제도 다양해 2024년의 경우, 챗GPT와 생성 AI, 한류의 저



지난 2003년 9월 미술을 주제로 열린 SNU 포럼 줌 강연.

력, 전기차와 테슬라, 사우디와 이슬람 문화, 핀테크, 세금상속자산관리, 인공지능과 뇌건강, 한국음악, 원자 두께의 회로 등 과학, 문화, 경제, 사회, 역사 등이 다뤄졌다. 또한 강연에는 한홍택 UCLA 석좌교수, 은퇴한 엔지니어 위종민 동문, 제니퍼 손 변호사, 이진형 스

탠퍼드 교수, 송명국 켈스테인트 롱비치 경영학과 교수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쌓은 동문 전문가들이 참여해왔다.

문의 및 제안은 김재훈 박사( mr.jh-kim@comcast.net, (425)786-7723)에게 하면 된다.

## <1면 홈커밍에서 계속>

버들골 야외음악당으로 이동하면서 1부 송우엽 사무총장 사회와 2부 박재민 동문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유홍림 총장님이 동문들을 환영하시며 하신 인사말씀이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10월 15일은 개교날이고 일요일은 홈커밍데이 날입니다. 작년에 이어 저희 총동창회에서 많은 행사를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뜻 깊은 날 옛날 추억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 그리고 반가운 여러 동문님들의 만남의 장에 같이 해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홈커밍데이는 모교를 방문하는 날입니다. 물론 그 학년에 따라서 학창시절을 보내셨던 캠퍼스가 여기 관악이 아니라 여러 다른 캠퍼스에서 다니셨던 동문들께는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대가 종합화된 1975년 이후 내년이 50주년입니다. 관악으로 옮겨 오면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모교의 “모”자는 어머니 모자에 학교입니다. 모교를 라틴어로는 Alma Meta로 모교가 나를 길러 주는 어머니, 자식 관계가 그랬듯이 모교는 여러분과 학교와 졸업생은 분리 될 수 없는 인연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여러분 동문들은 전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국가 인류를 위해서 기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후속 세대를 키우는 것이 서울대입니다. 더 훌륭한 앞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를 서울대에서 키워내기 위해서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기회 되는대로 찾아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항상 질문해 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홍림 총장님께서 서울대 발전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 삶을 바치시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의 환영사 이시다.

“매년 10월 대한민국의 가을은 세계



홈커밍데이에 참가한 미주 동문들이 서울대 정문에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적으로 유명한 아주 하늘은 맑고 천고 마비의 계절입니다. 매년 10월에 동문님들이 한마음 한가지 되는 즐거운 홈커밍데이가 열립니다. 서울대 규정각도 개방되었으니 여러 교정도 둘러 보시고 즐거운 홈커밍데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년 갈수록 더욱 즐기고 재미있는 홈커밍데이가 될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서울대에서 적극 후원해 주시어 학교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개방되어 규정각과 미술관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석학들이 모여 있고 또 훌륭한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있습니다. 재학생들의 힘찬 응원가를 보면서 개회를 하여 즐겁습니다. 멀리서 미주 동창회에서 많이 오셨고 일본 동창회장도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즐거운 홈커밍데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졸업생이 졸업 후에 모교에 이바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사를 이끌어 가시며, 단결과 결집에 힘쓰시는 모습이 사회복지학과 전공을 하신 또 사업가로 성공하신 그 패기로 이끄시는 모습이 믿음직해 협력할 수 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했다.

싱그러운 학생들의 모습이 옛날의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었다. 세월은 참빠르고 인생무상이지만 제 2세가 있어 끊임없이 연결되니 서운 할 것은 없다.

서울대 졸업생으로 이루어진 밴드와 경희대생들의 태권도 등 모두 일품이었다. 명품 사회로 지루하지 않는 하루를 만들었다.

서울대생의 2세 어린이들도 많이 참여했다. 부모와 함께 목마를 태워 무대에 나오는 모습은 그 자녀는 분명 미래의 서울대생일 것이다

10월 24 월요일 아침 6시에 남가주 참

가자 5분과 한국 일행 3분 및 일본 동창회 김덕길 회장 등 2팀이 모여 남서울 CC Golf장에서 멋진 하루를 보냈다. 한국은 골프장이 아담하고 빈틈없이 관리가 잘되었다. 도착하자 아침도 챙겨 주고 캐디도 있고 황재 골프장이다. 그래서 그 값이 있어 좀 비싼편이다. 서울에서 한번쯤 호화? 대접을 받아 불만도 하다. 청청한 날씨에 그동안의 노고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릴 수 있다.

Good Shot!!!

이날 오후 6시에는 삼익악기 홀에서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님 초대로 미주동문 저녁 야외파티가 있었다. 41명 미주동문들이 참여 하였다. “환영합니다”라고 쓰여진 팸플렛이 정감을 주었다. 총동창회 회장님 인사 말씀과 건배사 그리고 프로그램의 문구 “저녁의 자리로 돌아온 달빛과 별빛이 우리의 길을 이끌고 빛나는 추억들을 실어 나르는 찬란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각자 이자리로 돌아온 서울대인으로 우리됨을 느끼며 또 추억을 만드는 자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추억을 위한 음악회에 먼저 멋진 식사가 준비 되었다. 도시락 2층으로 된 상자가 정갈하게 요것 조것 들어 있었다. 합격이다. 위일청 가수의 내일이 찾아와도 외 8곡 / 밴드 파람 장윤석, 박수민, 박지혜 - 깊은 밤을 날아서 외 4곡을 들으며 황홀한 저녁 자리였다.

이전구 제9대 미주 동창회장의 하모니카 명품 연주도 있었다.

미주동문을 위해 너무 아름다운 환영을 해주신 유홍림 총장님, 김종섭 총동창회장님, 발전기금재단 및 관계자 송우엽 사무총장님, 양희주 대리님, 박미수 팀장님 외 여러분께 미주동창회를 대표해 감사인사를 전하며 우리 동문들은 뜻깊고 아름다운 추억의 지난 날들을 듬뿍 안고 모교 방문을 마쳤다.

멀리서 우리 모교가 세계 제일 으뜸되는 그때를 희망하며 작은 정성과 마음을 드리며, 후한 대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교여!!!





미주 의대 동창회 사무총장인 권정덕 동문이 모교에 125만불을 기부한 것과 관련 감사패를 받고 있다. 의대 18회 동기회 동문들이 졸업 60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열린 축하 모임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했다.

## 의대 18회 미주 동문들, 모교에 125만불 기부

졸업 60주년 기념 서울서 동기회 축하 모임  
동기 137명 중 87명이 미네소타 와서 공부

서울대학교 의대 18회 동기회(회장 한달선)는 지난 10월 5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에 모여 의과대학 졸업 6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모교 의대 학장을 비롯하여 미국 내 여러 지역과 한국 내에 거주하는 동문, 가족 등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자축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히 미주에 거주

하는 동문들이 정성을 모아, 모교 발전 기금으로 125만 달러를 전달하는 기념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125만 불에는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는데 뉴욕 동창회 이사장이자, 미주 의대 동창회 사무총장인 권정덕 동문은 “1899년에 개교한 ‘의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국내 최고의 의학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25주년 역사를 기

념한 뜻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18회 졸업 동기는 137명인데 그중 87명이 미네소타 프로젝트(Seoul National University Cooperative Project)의 영향으로, 미국으로 건너왔다. 전쟁 직후인 1954년, 한국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육 원조 기구로 미네소타 대학교가 결정되었고, 대상 학교로는 서울대학교가 그 혜택을 받았던 것. 미주 내에 거주하는 18회 졸업 동기들은 미네소타주 정부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

미네소타에서 온 김태환 동문은 “정운찬 총장 임기 중에 정식으로 미네소

타주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해줘서 무척 감격스러웠다”며 건강하니까 그런 감격도 느끼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60년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살아서 백두산을 걸어서 올라가는 모두가 되자”라며 “다 같이 백두산을 외치자”는 건배사를 하기도 했다.

축하 행사장 여기저기에는 80세가 넘긴 나이임에도 존칭도 생략한 채, “00아~”라며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거나 어깨동무도 하는 등 마치 60년 전의 천진스러운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어, 참석한 축하객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해주었다. **취재 = 이영주(농생대 83·편집위원)**

## 뉴욕 이진구 동문 ‘상록인 명예의 전당’ 입성

농업생명과학대 동창회 헌정식 개최

제9대 미주서울대동창회장을 역임한 뉴욕 지부 이진구(농대 60) 동문이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최근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는 포상위원회를 열고 이진구(임학과 60년 입학) 동문, 고 염도의(농학과 61년 입학) 동문, 현정오(농생물학과 66입학) 동문 등 3명의 동문을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한 업적을 이룩하였고 덕망이 높아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원로 동문으로 선정된 이들을 헌정하는 행사는 지난 10월 28일 관악캠퍼스 명예의 전당 헌정실에서 열렸다.

이진구 동문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에 이민와서 열심히 살았고

눈을 밖으로 돌려 봉사에 나섰을 뿐”이라며 “묵묵히 평생 해온 일인데 이렇게 뜻밖에 인정을 받고 덕분에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기쁘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진구 동문은 모교를 1964년 졸업하고 1970년 미국에 이민왔다. 1984년 뉴욕골프센터를 창업했으며 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다. 이어서 미국이민100주년 기념 세계상공인대표자대회 대회장(2003)을 맡기도 했다. 또한 1998년 ‘한글문학’에서 시인으로 등단한 후 2003년에는 재외동포재단 세계 한상대회에서 불린 ‘한상의 노래’를 작사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미동부 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동문회에서 봉사도 앞장서 뉴욕지부 서울대동창회 회장(1993-94), 제9대 미주 서울대 총동창



이진구 동문은 뛰어난 하모니카 연주 솜씨로 예술의 전당, 링컨센터, 월드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는 등 음악과 문학에 조예가 깊다.

회 회장(2007)으로 일하기도 했다. 이 동문은 현재도 1998년부터 맡은

뉴욕 한인가정문제연구소 이사장으로 봉사중이다. **장병희 편집위원**



# 양수진 동문, 졸업 40주년 맞아 모교에 천만원 기부

유홍림 총장, 간호대 홈커밍데이 참석 시상  
서울대병원 등서 미국 NP제도 관련 강연도

올해 졸업 40주년을 맞아 간호대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석한 남가주 양수진(간호대 80) 동문이 서울대 발전재단에 1천만 원을 기부했다.

간호대는 매해 10·20·30·40 주년 등 10년 단위로 졸업을 맞는 동기생들이 모여 홈커밍 축제를 벌인다. 지난 10월 17일(한국시간) 열린 홈커밍 데이엔 유홍림 총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총장이 특정 학번대의 동창모임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 총장은 축사에서 “간호대는 한국의 K-의료를 선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특별히 격동의 학창 시절을 보낸 80학번 동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양 동문을 포함한 80학번 간호대 동기생들은 1천800만 원을 모아 서울대 발전

재단에 기부했다.

유홍림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양 동문은 “서울대에서 보낸 4년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며 “큰 돈은 아니지만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졸업 40주년 행사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양 동문은 서울대측 초청으로 대학병원과 분당병원에서 패널토의 및 강연을 가졌다. Nurse Practitioner(NP)로 아직도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양 동문은 “최근 한국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돼 간호사들이 매우 고무돼 있다”며 “한국의 전문간호사와 비슷한 미국의 NP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 향후 간호사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양수진(간호대 80) 동문이 유홍림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양 동문은 졸업 40주년을 맞아 서울대 발전재단에 천만원을 기부했다.



미국에서 80년대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NP는 의사의 감독 또는 독립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으며 약을 처방할 수 있다.

## “오래 사셔야 서울대가 돈 더 많이 챙겨요”

“선배님이 오래 오래 사셔야 서울대에 돈이 더 많이 들어와요. 이 자리에서 약속하세요. 오래 사시겠다고.”

그 순간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던 참석자들이 ‘뿡’ 터졌다. 웃음을 참지 못한 채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난 2021년 9월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이 LA를 방문해 남가주 지역 고액 기부자들 및 동창회 임원진을 초청해 오찬모임을 가졌다. 김인종(농대 74) 서울대발전기금 미주재단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면서 이창신(법대 57)·이은수 동문 부부(사진)를 소개한 것이다.

이 동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서울대 측에 기증했다. 부부가 세상을 떠나면 부동산을 매각, 총액의 40%가 서울대 발전기금에 기부하도록 돼 있다. 말하자면 유증을 한 것이다.

당시 서울대 측이 확보할 기부금은 100만 달러 가량으로 추산됐다. 사회자는 그러나 이 동문 부부가 오래 살수록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 앞으로 10년 후 쯤엔 기부액이 두배로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농담을 한 것이다.

이 동문은 오 총장으로부터 “선배님, 고맙습니다” 인사를 받자 “별일도 아닌데...”하며 머쓱해했다.

이 모습에 감동한 미주 동창회보 편집진이 이 동문에 인터뷰 요청을 했다. 그의 모교애가 여니 기부자와는 남달랐기 때문일 터. 기업을 크게 일궈 천만장자가 된 것도 아니다. 소매업으로 부부가 열



이창신(법대 57) 이은수 부부의 나눔 실천 소유 부동산 유증 ‘은창 장학기금’ 만들어

심히 일해 번 돈을 서울대에 환원한 것이다.

이 동문은 그러나 정색을 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래서 이 동문의 기부는 그대로 묻혀버렸다. 2년 후 우연히 이 동문 부부를 만나게 됐다. 반갑게 인사를 건넨 이 동문은 “그때는 미안했다”며 정중히 사과를 했다. 동석한 최진석(법대 64) 동문이 설득을 하자 그제서야 기부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털어냈다.

부부는 지난 2015년 금혼식을 맞아 나눔을 실천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전 재산의 사회환원이다. 부부는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숙고하다가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유산 중 40%를 모교에 기증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는 신학대학, 이민자 봉사

기관 등에 기부된다.

이 동문은 김인종 사무국장을 만나 이같은 의사를 전달해 변호사 공증까지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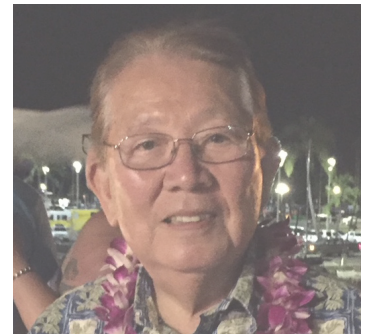
이 동문의 재산은 살고 있는 집과 아파트 등 주로 부동산 위주로 구성돼 있다. 남가주 부동산 시장이 핫해 앞으로 10년후 쯤엔 눈덩이처럼 불어날게 뻔할 터. 김인종 사무국장의 우스개처럼 이 동문 부부가 오래 살아야 서울대가 더 많은 기부금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동문 기부금은 학생들의 학자금 지급, 식비와 숙박비 지원에 전액 쓰여지며, 학생 개개인이 학비에 구애받지 않도록 충분한 장학금을 지급기로 했다.

부부는 “일제 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이 살아남아 기적의 성장을 이룬 것은 인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난과 전쟁 속에서 인재들을 키워냈던 것은 머리숙여 감사할 일”이라고 했다.

부부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돈도 많이 잃고 부부가 함께 별의별 고생도 다 했지만 지나간 모든 삶에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며 “많지는 않지만 재산을 이렇게 환원하고 나니 마음이 가볍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창신 이은수 부부의 서울대 장학기금은 부부의 가운데 이름을 따서 ‘은창 장학기금’으로 명명됐다. 아내의 이름을 앞세워 남다른 부부애를 느끼게 한다.



## “유대와 소통에 앞장서 주길” 박종성 동문 종신이사에

북가주에 거주하는 박종성(법대53) 동문이 최근 미주동창회 종신 이사가 됐다.

박종성 동문은 법대 입학 이듬해인 1954년 2학년 재학중 미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학사와 석사를 받고 미국 대기기업인 Harper & Row, NABISCO, Westinghousing Broadcasting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뱅크오브아메리카의 국제증권 도쿄 지점장을 지냈으며 뉴욕 월가에 있는 시티그룹의 ‘세계 증권서비스’에서 수석 부사장을 역임한 후 은퇴했다.

박 동문은 뉴욕에서 40여 년간 거주하다가 15년 전에 아내와 함께 기후가 온화한 북가주로 이주해서 살고 있다.

박 동문은 “미주 동창회가 그동안 이루어 온 눈부신 발전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창회원간의 유대와 친목, 소통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병희 편집위원



# 미국에 일본군 '위안부' 진실 알리는데 앞장

## 구순 맞은 조봉완 동문(법대 53)

38년간 미국 명문 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한 조봉완(법대 53입학) 동문이 최근 만90세 생일을 맞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동창회보는 법대 출신으로 역사학자가 된 이유와 일본 위안부 관련 컨퍼런스를 조직하고 패널로 끊임없이 참가해온 조 동문의 행적을 소개한다. 특히 그의 꾸준한 노력이 더해져 2007년 연방 의회에서 위안부 사죄 결의안(HR121)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후배들의 롤모델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

조봉완(영어명 Bonnie Oh) 동문은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왔고 자신이 있는 환경에서 꾸준히 진실을 추구해왔다는 점에서 후배들에게 큰 본보기가 될 수 있다. 1934년 태어난 그는 변호사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1953년 자연스럽게 법대에 입학했다. 하지만 2학년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여판사의 자살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전공을 포기하고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최고의 대학을 다녔으니 옮길만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해외로 나오는 길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아이비리그대학은 남녀공학이 아니었고 여자들은 여대에 입학했다. 그래서 레드클리프, 바사르, 바너드에 유학을 타진했고 모두 합격했지만 대도시엔 있는 바너드를 선택해서 미국에 왔다.

“바너드에서 3년 반을 보냈습니다. 정말 멋졌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자만심이 사라졌습니다. 제 시각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너드에서 미국 식민지 역사로 학사 학위를, 조지타운대에서 러시아 및 유럽 지성사 석사 학위를, 시카고대에서 동아시아 역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조지타운 대학에서 한국학 명예교수로 은퇴했으며, 그곳에서 여성학 책임자와 대학 옴부즈맨을 역임했다. 조 동문은 대학에서 38년간 가르쳤다.

최근 시카고 동문 후배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조 동문은 어려서부터 세계 위인들의 전기를 즐겨 읽었던 것이 역사를 좋아하고 전공까지 하게 된 것으로 회상했다. 특히 10세에 읽은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이 기억에 난다고 말했다. 이 시기에 조지 워싱턴과 체리나무, 에이브러햄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다. 대학 입학후에는 한국 왕조의 몰락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



지난 8월17일 90세 생일 축하모임이 열렸다. 앞줄 오른쪽에서 2번째가 조봉완 동문.

## 역사 좋아해서 역사로 석사 박사까지 백과사전-학술저널에 한국 항목 기고 부군 별세 후 역사 소설 등 3권 출간

했고 이면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했다.

조 동문은 교편을 잡고 있는 동안 Jesuit Entry to China, Comfort Women of WWII,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Korean Embassy in America를 포함 수많은 책을 저술하거나 공저자로 나서거나 편집했다. 그는 또 Encyclopedia Britannica, Oxford Encyclopedia of the Modern World, World Book Encyclopedia, Compton's Encyclopedia를 포함한 백과사전에 한국에 대한 항목을 기고했다. 그는 또한 Journal of Asian Studies, American Historical Review, International History Review를 포함한 학술 저널에 기고하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와 미국 군사 정부, 한국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일제 강점기의 한국 등 한국 역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수시로 강연해왔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그가 특별하게 다룬 주제다. 그는 1992년 출범한 위안

부 문제를 이슈화한 단체인 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an Issues(WCCW)의 공동 설립자가 됐다. 1996년 9월 30일 개최한 '제 2차 세계 대전과 위안부(Comfort Woman)의 유산과 교훈'이라는 학술 컨퍼런스의 공동 주최를 시작으로 2001년에는 같은 주제의 'Legacies of Comfort Woman of WWII'를 공저로 내놓았다.

조 동문은 이어서 2012년12월1일 조지메이슨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2014년11월25일 미국가톨릭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2016년 5월2일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같은 해 10월 17일 뉴욕시립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2017년 6월 1일 호프스트라 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같은 해 10월13일 뉴욕시립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패널로 참여해 주제 발표를 했다.

조 동문의 후배로 WCCW대표를 역임한 이정실 박사는 후배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열어준 개척자라며

80세가 넘는 나이에 세미나에 참석해 강연에 나서 많은 후배들에게 용기와 열정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가 공동으로 창립한 WCCW는 최근 3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하는 등 현재도 세계의 중심인 미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자행한 만행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조 동문과 후배 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지난 2007년 연방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죄(HR121)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마이클 혼다 연방 하원의원은 2007년 1월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Affairs)의 아시아 태평양환경소위원회 (Subcommittee on Asia, the Pacific, and the Global Environment)에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이 결의안에 대해 2월 15일 의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2007년 6월 26일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찬성 39표, 반대 2표로 공식 채택되었으며, 이어 2007년 7월 30일에 연방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결의안이 공식 결의로 통과되는 과정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과 중국 이민자들의 활동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요구는 결의안 중 제외되었다. 하지만 연방 의회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유럽의회를 포함한 유럽 각국의 의회, 호주, 일본의 지방의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식민지배와 전쟁 중 발생한 여성인권 침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역사적 사례로 자리잡게 되었다.

조 동문은 부군 별세 후 2013년에 어린 시절 회고록인 '옥그릇 속의 피닉스: 한국에서 성장하다'를 출판했고 2016년 9월에는 19세기 후반 조선의 마지막 국모 명성황후의 죽음을 다룬 역사소설인 '궁내의 살인'을 출간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Longing for Mother(어머니를 그리워 하며)'를 출간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 동창회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부터

연 100 달러 ... 동창회보 제작과 사회공헌 활동 등에 기요하게 쓰입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 Tel: 818-395-1967 | Email: snuausa17@gmail.com



# 망망대해에 요트 한 척 띄워 놓고 바람따라

나의 취미

김태환(자연대 수학과 79) 동문의 요트 항해

팔남매를 키우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한 숨 쉬던 부모님은 삶이 안정된 후 피서지에서 작은 모터 보트를 빌려 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하얀 물살을 가르며 짧은 스릴을 어린 아들이었던 필자보다 더 좋아하셨다.

어릴적 압록강에서 수영과 스케이트를 즐겼다는, 평안도 의주가 고향이었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거동이 불편해도 가끔 한강에 나가 홀로 유람선을 타고 와 식구들을 놀라게 했다.

마치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겨우 잘 헤치고 나왔지만 배를 타면, 북녘땅의 헤어진 식구들, 소련군에 빼앗긴 만주의 사업체, 폭격에 불타버린 을지로의 사업체, 아니 어쩌면 육지의 모든 답답한 세상 일들이 머리결을 스쳐가는 바람에 날려 사라지며 잠깐이라도 작은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했다.

필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해보니 나도 물과 바람을 은연중 좋아했었다. 풀타임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2002년 메릴랜드대에서 전자공학 박사를 받고 2006년 남가주로 옮겨온 후, 낙하산, 패러글라이딩, 글라이더 비행 조종을 체험하고 아름다운 카탈리나섬과 산타크루즈섬에서 카약 캠핑도 즐겨보고, 2019년 마리나 델레이에 있는 UCLA Acouatic Center에서 2인승 소형 요트 강습도 쳐와 함께 받았다.

코로나로 주춤하다가 2021년 직장을 옮겨 마리나 델레이 근처로 이사를 한 후, 자연스럽게 마리나 델레이에서 맨해튼, 레돈도, 플라야 델레이, 베니스, 샌타모니카 비치들로 산책과 사이클을 하면서 잠재워졌던 요트 항해기술을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은퇴 후 체력과 정신력이 받춰줄 때까지 아내와 함께 항해하고 싶었다.

그러나 약 5천 척의 취미생활 및 거주용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 미국 서부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마리나 델레이에서 저렴한 가격에 요트강습을 받기는 쉽지않다. 배와 항해기술교육을 제공하는 회원제 요트클럽들은 가격도 비싸거니와 의무적 사고모임 등이 이민 1세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 올 초 우연히 LA 한인신문에 난 미주한인요트동호회 기사를 보고 아내와 함께 훈련팀에 합류하게 됐다. 동호회를 이끄는 남진우 회장은 2023년 미국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40 피트 작



취미생활로 요트 항해를 하고 있는 김태환 동문이 요트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은 요트로 LA에서 인천까지 태평양 횡단을 한 요트경력만 15년에 코스트가드 선장 인가를 받고 차터보트 사업도 하는 분이였다.

부부 회원 특별 할인 덕에 우리 부부는 수강료 3천불을 내고 매 주말 남선장님의 40 피트 대양 항해용 배로 연습하면서 항해기술을 익히고 여행 가서 요트를 빌리는데 필요한 요트 이력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배가 좁은 마리나 정박 피어에서 조류와 바람이 강할 때 입출항을 위해 방향타를 잡는 키잡이(helmsman)와 앞뒤의 선원이 고정 로프를 풀면서 배의 진행방향을 맞춰주면서 끌고 나오다가 올라타는 팀워크를 맞추려면 연습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입출항 때에는 키의 각도와 작은 보조엔진의 전진 후진 동력을 조정하기 위해 몸의 위치를 민첩하게 바꿀 수 있어

야 하며, 앞 뒤 돛을 차례로 올리고 바람을 잘 받기위해 배와 돛, 키의 방향 세가지를 잘 활용하는 연습도 물론 두 명이나 세 명의 팀워크가 잘 맞아야 한다.

더 작은 배로 더 많은 연습을 하기 위해 너 달 정도 발품을 팔다 지난 6월 1963년형 35 피트 연안항해용 배(모델 이름은 스웨덴 제작사 알버그 피어슨 35)를 롱비치 옆 Wilmington 포구에서 찾아냈다.

배를 직접 제작하고 자식처럼 아껴쓰다가 은퇴하는 경험많은 화가 노부부에게서 만 팔천불 정도에 동호회 다른 회원과 공동구매할 수 있었다. 전문 감정사(surveyor)의 안전진단과 필수 수리, 차후 수리 추천 리스트를 받은 후 약 3천 불의 배관, 프로펠러, 방향타 보수와 수리, 2500불 정도를 들여 물에 잠기는 밑부분의 페인트 작업을 마치고 6월 하순 매달 715불의 정박료와 전기, 수도, 화장실, 샤워, 세탁실을 사용할 수 있는 마리나 델레이의 마리나로 옮겨와서 이 배와 남선장님 배 2척으로 연습하고 있다.

연습시간이 늘면서 팀워크가 잘 다져지고 있고, 곧 6시간에서 8시간정도 걸리는 카탈리나 섬 항해를 두 척으로 다녀오는 준비를 하고 있다. 무선연락, GPS 항법, 레이더, 전자항해도, 자동 항해, 닻을 오르내리는 법, 취사기능 등을 계속 연습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바람과 조류의 방향에 배, 돛, 그리고 키를 최적화 시키는 항해술을 주말마다 연습하고 있다.

연습용 배 두 척이 마리나 델레이, 그리고 좀 더 작은 27피트 요트 한 척도 롱 비치에 다른 회원이 마련해 놓았으므로, 배를 구매하지 않고도 연습을 시작해 보며 취미생활로 좋을 지 판단해 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다.

보통 75세 될 때까지는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팀워크가 잘 짜여진 팀과 같이 하면 더 나이 들어도 배를 타고 즐기며 바다수영, 카약,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낚시도 하고 캠핑보다 편한 선실에서 쉬면서 돌고래때나 물새들도 관찰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복잡한 일상 생활을 떠나 바람따라 구름따라 망망대해를 팽팽한 돛과 밧줄과 물 속의 방향타가 합쳐서 보내주는 팽팽한 신호를 팔 근육으로 직접 느끼며 항해하면서 ‘큰 물’에서 유유자적 취미생활을 시도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다.

페이스북에서 미주 한인 요트 동호회를 찾으면 연락처를 알 수 있고, 물론 필자의 이메일 tkim0108@yahoo.com 로



# 물결따라 수영하고 낚시하며 세상 시름 훌훌

연락주셔도 고맙겠다.

조금 일찍 시작할수록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자녀들과 함께하기 좋고 친구들과 공동투자하면 비용도 다른 취미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요즘 한국에서도 취미로 요트생활 시작했다가 부부가 유럽이나 하와이 등 여행기를 유튜브에 올리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돛단배 항해를 취미로 삼게 된 또 하나의 동기는 미국으로 이민 와서 수학 전공을 컴퓨터 공학으로 바꾸어 석사, 또 전자공학 박사로 바꾸면서 30년 넘게 미국 정부의 GPS항법 시스템 상업용 개발에 참여해 어떻게 항법기술과 시스템이 발전되어 왔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최근에는 아폴로 계획부터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James Webb Space Telescope) 까지 우주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노스롭 그루먼사에서 달과 화성을 재탐사하고 상업용 개발을 하려는 NASA의 Artemis 계획을 위해 달 표면의 통신, 항법, 그리고 에너지 공급에 관해 연구 발표하면서, 인류가 어떻게 대양항해를 위해 항해술을 개발했는지 역사를 다시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흔히 고대에는 나침반과 별자리를 보며 항해했다는 상식 이후의 근대 대양항해술에 관심이 있으면 Dava Sobel 작가가 쓴 Longitude 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다.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지구의 자전속도와 거리를 잘 측정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추시계에서 정확한 톱니바퀴에 의한 크로노미터를 개발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시계와 중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자이로스코프와 엑셀로미터가 필요했는지 잘 설명되어 있고, 이 기술을 제일 먼저 터득한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샌타모니카 앞바다에서 항해하는 김태환 동문.

## 아내와 함께 할 취미, 3천불 수강료로 시작 항해 기술 배우며 요트 이력서 만들어가는 중 친구들과 공동 구입하면 비용도 많이 안 들어

수 있게 된다.

현재의 GPS 기술은 더욱 정밀한 원자시계의 개발로 가능해졌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에 따라 달의 시간은 지구의 시간보다 매일 57.5 마이크로 세컨드, 대략 백만분의 57.5초 빠르게 가기 때문에 달에서 오랫동안 수정하지 않게 쓸 수 있는 새로운 원자시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이 무언지 모르면서도, 중력과 속도에 의해 바뀌는 시

간을 측정하면서 문명을 개발해 온 인류가 대단하기도 하지만, 알아내면 알아낼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지는 불안전성과 불확실성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네 모습에서, 무슨 인연으로 가족이, 동문이, 사회가, 국가가 되고 기가 막힐 만큼 운 좋게 큰 바다를 가진 지구에서 잠시 머물다 가게 되었는지 경외감을 안 가질 수 없고, 생명의 근원인 바다가 부르는 소리에 어찌면 본능적으로 응답

하고 싶어졌으리라.

경운기 사이즈 18마력 엔진을 단 돛단배를 팽팽한 돛과 밧줄과 도르레와 지렛대와 근육의 힘만으로 움직여 가면서 느끼는 점이 몇 가지 있었다.

첫째, 인생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듯이 강한 반대 조류와 거센 역풍이 앞을 막으면 튼튼한 배는 바닷물에 젖으며 좁고, 배고프고, 멀미가 나더라도 정신력과 체력과 팀웍으로 이겨내야 한다. 평소에 체력과 정신력을 가다듬어야 하고 팀웍을 위해 스스로를 자주 돌아보며, 팀원간에 잘 소통하고 친교를 다져야 한다.

둘째, 중심이 낮고 좌우앞뒤 대칭 균형이 잘 맞추어진 full keel 배는 복원력이 좋아 대양항해와 안정적인 항해에 더 적합하지만 아무래도 속도는 떨어지기 마련이고, 반대로 대량생산하는 날씬한 fin keel이 달린 배는 속도가 빨라서 주로 레이스용으로 쓰이지만, 승선감은 덜 좋고 복원력이 떨어져 전복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엔진힘만으로 제일 빨리 가는 파워보트는 제일 복원력이 약하다. 따라서 이런 배들을 가까이에서 조우하게 되면 기동성이 좋은 파워보트나 엔진을 켜 요트가 먼저 양보하는 것이 의무이고 주말에 봄비는 포구를 들고 나갈때 항상 유의해야 하고 뱃머리 감시 선원이 키잡이와 잘 소통해야 한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개인적 사회적 이해충돌이 생길 때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더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를 타면서 트라우마가 있는 재향군인이나 불우아동들이 다시 희망을 찾는 것을 보며, 스스로와 가족들의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위해 생명의 근원 큰 바다로 바람따라 구름따라 같이 항해할 동문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



수리를 위해 구매한 배를 올렸을 때, 복원력이 좋은 full keel 선체 모습을 볼 수 있다.



뒷바람을 받고 갈 때는 윈윙이라고 해서 앞 뒤 돛을 양쪽으로 반대로 펼쳐 최대한 바람을 이용해야 한다.



남진우 선장이 태평양 항해에 성공하고 인천 박물관에 기증하고 온 배와 똑같은 배로 마리나 델레이에서 이 배로 연습하고 있다.



# 인간은 어떻게 오늘날의 지배적인 종이 되었는가

뉴욕 동창회 북클럽 제 4차 토론회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를 읽고

뉴욕 동창회 북클럽 동문들은 지난 9월 19일 뉴욕 베이사이드 소재 거성 식당에 모여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에 대해 열린 독서 토론을 벌였다.

저자는 영국 옥스퍼드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학 강의를 하고 있다.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다음과 같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대담하게 던진다.

변방의 유인원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는가? 수렵 채집을 하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한 곳에 모여 도시와 왕국을 건설하였는가? 어떻게 신과 국가와 인권, 돈과 책과 법을 신봉하게 되었는가? 앞으로 천 년 동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인가?

대담하고 도발적이며 전방위적인 지식을 담은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는, 인간다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한다. 우리의 신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힘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폭 넓은 주제로 독자를 안내한다.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해암(의대 52) 교수는 40대 젊은 나이의 저자는 새로운 기법으로 인류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명성을 높였다고 개인적 생각을 전했다. 또한, 역사가들은 모두 인류 역사부터 시작 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며 아마도 모든 인간들이 인류의 기원을 알고

싫어하고, 기록이 없는 역사를 상상력을 동원하여 기술하는 경쟁에 심취하는 것은 저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제 1장의 시작은 '인지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여 기존의 인류학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사피엔스'가 약 7만년에 시작하여 3가지 혁명, 즉 사고하고, 농업혁명을 발명하고, 과학혁명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고 저자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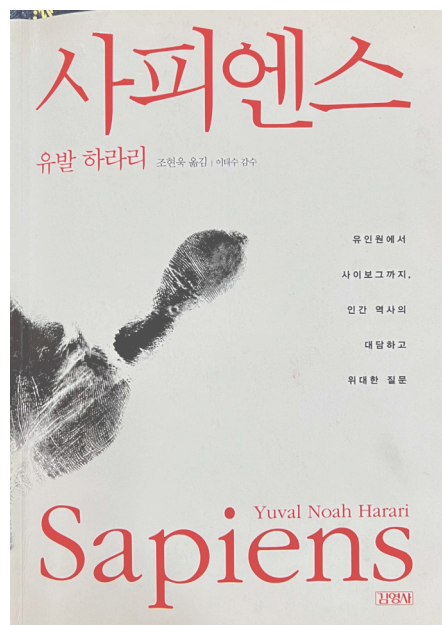
제 2장에서는 인간의 지능이 발전을 거듭하여 불을 80만 년전에 쓰기 시작하였으며, 7만년 전부터 동 아프리카 발생지로부터 이동하기 시작하여 열대 지방을 거쳐 호주, 타즈마니아 등지로, 중국, 시베리아를 거쳐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피엔스 인간만이 마지막 현생인류가 왜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피엔스를 공부하는 것은 흥미롭고, 우리의 사고를 자극하는데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본다며 그의 개인적 느낌을 전했다.



뉴욕 동창회 북클럽 회원들이 지난 9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고 토론을 벌였다.



'사피엔스' 책 표지.

두번째 주제 발표는 천흥규(상대 84) 변호사가 맡았다.

저자는 농업혁명을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정의하고 그 이유로 수렵 채집인의 생활보다 노동시간이 긴 농경인이 더 힘들고 불안한 생활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줌의 밀과 쌀, 감자 등이 호모 사피엔스를 길들였지, 호모 사피엔스가 자연을 길들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럼 인류는 왜 이런 치명적인 계산 오류를 범했을까?

과거에 수렵채집인으로서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번째 주제는 양군식(음대 82) 목사가 '통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인간사회가 그 규모가 점점 크고 복잡해지기 시작한 때는 농업혁명 이후이다. 그러므로 수백만 명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인위적 본능의 네트워크가 바로 문화이다. 모든 문화는 나름의 전형적인 신념/규범/가치

## 농사는 역사상 최대의 사기 사피엔스 몸매에 맞지않는 일 땅에 매이며 노동착취 당해 하지만 농업 이후 왕국 시작

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은 결국 변화한다.

어떻게 수 천개의 고립된 문화가 세월이 가면서 점차 합쳐서 오늘날의 지구촌을 형성했는지 이해하려면, 화폐, 금과 은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제국이란 무엇인가?

첫째,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서로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민이 한 국가 체제하에서 존재해야 한다.

둘째, 탄력적인 국경과 잠재적으로 무한한 지배 능력을 갖춘 국가이다.

존재했던 모든 제국들은 인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보편적인 정치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해왔다. 그러나 전부 거짓말로 끝났고 실패했다. 진실로 보편적이었던 제국, 모든 인류에게 유익했던 제국은 단 하나도 없었다. 21세기에 존재하는 제국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대변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마지막 발제는 북클럽을 리드하고 있는 신용남 (농대 70 · 15대 미주회장) 동

문이 맡았다.

지난 5백년은 깜짝 놀랄 만한 혁명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시기였다.

오늘날 인류는 동화에서나 들어보았을 부를 누리고 있다. 과학과 산업혁명 덕분에 인류는 초인적 힘과 실질적으로 무한한 에너지를 갖게 되었다.

사회질서는 완전히 바뀌었으며 정치, 일상생활, 인간의 심리도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행복 해졌는가? 라고 작가는 질문을 던진다.

지난 5세기 동안 인류가 쌓아온 부는 우리에게 새로운 종류의 만족을 주었는가? 좀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인지혁명 이래 험난했던 7만년의 세월은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었는가?

학자들이 행복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확고한 결론을 채택하고 논의를 마무리 짓기에는 너무 이르다.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고 작가는 말한다.

자연선택의 결과, 호모 사피엔스는 다른 어떤 생명체도 누리지 못했던 거대한 운동장을 갖게 되었다. 호모 사피엔스는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는 중이다.

이제 호모 사피엔스는 자연 선택의 법칙을 깨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지적설계의 법칙으로 대체 하고 있다.

우리는 머지않아 스스로의 욕망 자체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정한 질문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일 것이다.

이 질문이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작가의 말로 글을 맺는다.

북클럽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다음 토론회의 교재로 선정하고 4번째 9월 모임을 끝마쳤다.

한편 10월 8일 노벨 문학상이 비교적 젊은 한국의 소설가 한 강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접하며 부랴부랴 한 강 작가의 대표작 '채식주의자'를 읽기로 했다.

취재=신용남(농대 70 · 15대 미주동창회장)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멋진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백옥자 음대 71입 ♥ 김경숙 식품영양학과 70입  
원정윤 농대 89입 ♥ 이만택 의대 52입 ♥ 조무상 법학과 70입 ♥ 한귀희 회화과 68입

# 서울대에

천원의 식사는 학생들이 한끼 천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당신의



천원의 식사에 참여하신 모든 기부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너 월에 기록합니다

# 이름을



지금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간단 참여신청서를 찍어 ☎ 213-435-1974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 새겨



간단 참여 신청서

저  성함  은(는)

매월  기부액  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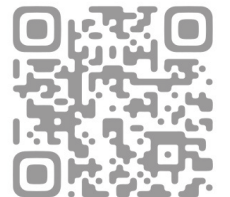
천원의 식사 후원에 참여합니다 ♥

휴대폰 번호

학과  년 입학

이 특별한 벽에 기부자님의 이름과 함께 나눔의 뜻이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남가주 총동창회

# 가을 야유회, 동문·가족 250여명 한자리



지난 10월 5일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임춘택)는 부에나파크 소재 램프클라크 가을 야유회 행사를 가졌다. 이날 각 단과대별로 동문과 가족 250여 명이 참석해 갈비 점심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지아 동창회

# 가을 야유회 “반갑구만 ... 반가워요”



조지아 서울대 동창회(회장 최화진) 가을 정기야유회가 10월 19일(토) 낮 돌루스 맥대니얼팜 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야유회엔 50년대 학번 대 선배들부터 20대 젊은 유학생들까지 120여 명이 참가, 서로 반가움을 나누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또 귀넷척추신경원 임우준 원장의 건강 체조 강의를 비롯해 다양한 게임도 야유회의 즐거움을 더했다. 최화진 회장은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동문들이 애틀랜타로 잇따라 이주해 오면서 우리 동창회도 더욱 활기를 띠는 것 같다”면서 “오는 12월 14일 송년모임 때는 더 많은 동문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828)242-7150



조지아 동문들이 임우준 건강체조 강의를 들으며 체조를 따라하고 있다. 다양한 게임과 정성껏 준비한 음식도 동문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워싱턴DC 동문들이 지난 9월21일 열린 가을 피크닉에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기념 촬영을 했다.

워싱턴DC 지부

# 화창한 가을날, 즐거운 피크닉

## 동문 · 가족 80여명 소중한 추억 쌓아

지난 9월 21일 메릴랜드 주 베데스다에 위치한 Carderock Picnic Pavilion에서 워싱턴 D.C. 지부 동창회(회장 정세근 · 자연대 82)의 가을 피크닉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었으며, 동창회

원 50여 명을 포함해 80여 명의 동문 가족들이 참석해 친목을 도모했다. 참석자들은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며 바비큐를 즐기고,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과 반갑고 친근한 대화를 나누었다. 식사 후에는 이관후(산공87) 동문의

사회로 다양한 게임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컵 쌓기’와 ‘몸으로 말해요’ 게임에서는 참가자들이 혈액형별로 네 팀으로 나뉘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게임 도중 팀원들의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모습이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날 행사는 김해식(공대59) 선배님과 이영목(공대59) 선배님을 비롯해 임경빈(수의대12) 동문까지 53년의 세대 차이

를 뛰어넘는 동문들의 화합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들의 유대감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며 동문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동창회 피크닉은 참석한 모든 동문 가족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으며 동문들은 다음 모임을 기대하며 아쉽게 헤어졌다.  
취재=한정희(미대 81 · 편집위원)

미시간 지부

# 건강 세미나 듣고 장학금 수여식도



미시간 지부 동문들이 지난 8월10일 한인문화회관에 모여 건강 세미나와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했다.



건강 세미나 강연을 하고 원종수 박사.

## 고광국 · 고국화 박사 부부 장학생 5명 선정

지난 8월 10일 오후 Southfield에 위치한 한인문화회관에서 건강 세미나 및 장학금 수여식 행사가 열렸다. 건강 세미나는 원종수 박사(의대 69)가 ‘암의 정복은 가까이 왔는가- 현대 의학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면서 강연에 이어 동문들의

궁금증에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원 동문은 먼저 암은 Immune dysfunction에 의한 질병이라고 정의하면서 여러 치료방법을 소개했다. 기존의 치료방법이 어떤 경우에 효과적인지 Targeted Therapy와 Immune Therapy 등 새로운 각광받는 치료법도 자세히 설명했

다. 또한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하지말아야 할 것들과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다. 세미나에 이어 고광국(화공 54)/고국화(화공 56) 박사 부부의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으며 장학생으로 선정된 다섯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전달됐다. 다섯 명의 장학생은 다음과 같다.  
▶Albert Shim(University of Michigan)

▶Eric Yun(University of Michigan)  
▶Jane Kwon(University of Michigan)  
▶Lisa Baek(Brown University)  
▶Seokmu Kwon(University of Michigan)  
장학금 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장학위원인 원윤식(음대 74) 동문이 준비한 스시 세트를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행사를 마무리했다.  
취재 = 이광진(공대 81 · 미시간 지부회장)



# 뉴욕 동창회 합창단 출범 ... 순식간 31명 모였다

### 동문들 동창회 참여 유도 연말 송년파티때 첫 공연 정기 연습하며 친목 다져

뉴욕 동창회 합창단이 결성되었다. 정경희(뉴욕 동창회 음악국장) 동문의 제안으로, 숨어있는 동문들의 동창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집행부의 결정이었다. 단원을 모집한다는 공지 글이 동문회 카톡 대화방에 올라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떨리는 롱아일랜드와 남부 뉴저지에 사는 동문이 참여를 희망하여 순식간에 30명을 훌쩍 넘겼다.

연말 송년 파티 때 첫선을 보일 합창단은 지난 18일 뉴저지 헤켄섹에 위치한 필그림 교회에서 첫 연습을 시작하였다. 거리나 여건상 연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문은 각자 연습하여 당일에 합류하여 총 연습 후 무대에 서게 된다.

정경희 국장은 "오늘이 첫 연습임에도 예상대로 단원들 수준이 매우 높았다. 음악을 사랑하는 선후배가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기뻐했다. 또 "공연이 끝난 뒤에도 지역별로 정기 모임을 하

고 한국 가곡을 부르며 친목을 다지는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면서 "뉴저지 모임은 11월 중순경에 이영주 동문 집에서 첫 모임(가칭 뉴저지 뜰부기 모임)을 가질 예정" 이라고 밝혔다.

31명이라는 적지 않은 단원이 모인 '뉴욕 동문 합창단'은 연습과 공연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면서 앞으로 뉴욕 동창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뉴욕동창회 합창단원들이다.

강병승+윤정민(농생대 86), 김병순(사회대 82), 김(박)현미(문리대 58), 김은자(간호대 75), 김정필(공대 71), 김충진(농대 64), 민준기(공대 59), 박경희(음대 57), 변진환(음대 94), 송란(음대 81), 오성(법대 76), 우규환(사대 60), 유호근(문리대 71), 윤자영(음대 89), 이강민(문리대 64), 이명중(공대 72), 이명준(공대 72), 이수영(미대), 이승우(약대 63), 이준희(음대 95), 정경희(음대 82), 정준영+장예(문리대 67), 제갈경희(음대 70), 한빛나(음대 05), 홍예경(공대 64), 한윤미(사대 83), 홍정표(음대 67), 황소희(음대 08), 황윤(약대 81) 이상 31명

취재 = 이영주(농생대 83 · 편집위원)



뉴욕 동창회 합창단이 결성됐다. 지난 18일 열린 첫 연습때 참석한 동문들.



뉴욕 동창회 합창단 동문들이 연습을 앞두고 정경희 음악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10월12일 열린 뉴욕 동창회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들. 김광현 동문이 대회 부상으로 기증한 작품은 박기환 동문이 받았다.



# 장학기금 골프대회 ... 동문들 2만 2580불 후원

### 구순 넘긴 김영덕 동문 노익장 김광현 동문 회고전 작품 기증

뉴욕 동창회 지부에서는 지난 10월 12일(토) Split Rock Golf course에서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준비를 위한 집행부의 완벽한 수고가 돋보이는 가운데 참가 동문들은 힘찬 티샷을 날리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청명한 날씨는 골프대회를 치르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참가자 전원은 '초가을 정취에 흠뻑 취하여 동문들과 함께 라운딩하며 친목을 다졌다'며 즐거

워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참여 인원수가 예년에 비해 적었다. 젊은 동문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휴일로 대회 일자를 잡았으나 개최 일자가 콜럼버스 연휴로 이어지는 주말인 탓에 한국 방문이나 여행을 하는 동문들이 많았기 때문. 하지만 구순을 넘기신 김영덕 동문이 노익장을 보여주며 후배들을 격려하였고,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한윤미(사범대 84)동문이 참석하여 시니어 동문들을 흐뭇하

게 만들었다.

이번 대회를 더욱 빛내 준 부상은 지난달에 "흔적을 남기고"라는 주제로 회고전을 가진 김광현(미대 57) 동문이 기증한 작품이다.

Close Pin Award로, 작품을 차지한 박기환(문리대 58) 동문은 애초 "사정상 대회 참석이 불가능했으나 어렵게 시간을 내어 참가했다. 그런데 이런 큰 선물을 받게 되었다"며 크게 기뻐하였다. 특별히 골프 대회에 참가하는 하지 않았지만, 장학기금으로 찬조한 동문들 덕분에 풍성한 Fund Raising이 되었다. 장학기금 후원자와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기금 후원 = 송학린 \$3,000, 노재욱

\$3,000, 조상근 \$3,000권정덕 \$2,000, 정해민 \$1,000, 성기로 \$1,000, 금영천 \$1,000, 손경택 \$1,000, 이진구 \$1,000, 최한용 \$1,000, 한윤미 \$1,000, 신응남 \$500, 양군식 \$500, Edward Kang \$500, 김창수 \$500, 김정필 \$500, 관선섭 \$500, 홍종만 \$300, 오인석 \$300, 간호대 \$200 김병순 \$200, 우규환 \$100 김영덕 \$80 등 (총 모금 금액 \$22,580)

수상자 = Medalist 박문언 (84타), Champion 박기환(87타 Gallaway 72타), 1st Winner 계동휘 (93타 Gallaway 73타), 2nd Winner 우규환 (93타 Gallaway 73타), 3rd Winner 관선섭 (94타 Gallaway 73타), Longest 조승자, Close Pin우승 박기환

취재 = 이영주(농생대 83 · 편집위원)





이번 음악회를 기획한 이소정 교수(음대 84). 멋진 연주로 감동을 준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교수(음대 84). 음악회 후 다과를 즐기는 동문들.

## 황홀한 선율과 따뜻한 만남 가득했던 잊지 못할 하루

###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초청 음악회 성황 지역 사회와 함께 한 뜻깊은 행사 더욱 소중

2024년 가을, 시카고의 밤하늘 아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서울대학교 동창회 시카고지부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교수를 초청해 개최한 음악회는 감동과 깊은 여운을 남기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조규승 회장(문리대 72)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음악회는 이소정 교수(음대 84)의 열정적인 준비를 통해 더욱 풍성해졌다.

이경선 교수는 비탈리 샤콘느, 헨델-할보센 파사칼리아, 라벨 바이올린 소

나타, 지고이네르바이젠 등 클래식 명곡들을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주로 선사하며 관객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이끌었다. 특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스타인웨이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와 조화를 이루며 더욱 빛나는 무대를 만들어냈다.

음악회 후에는 시카고 한인문화원에서 마련된 다과와 식사 자리에서 동문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을 나누었다. 중부시장 등 시카고 현지 기업들의 후원 덕분에 더욱

풍성한 행사를 만들 수 있었으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져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동문들의 모임을 넘어, 음악을 통해 시카고 지역 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자리였다. 시카고 한인문화원의 비스코홀을 대여하여 아름다운 공연장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더욱 풍성한 행사를 만들어냄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했다.

이어 열린 2024년 제2차 이사회에서는 조규승 회장 부재 속에 정성일 수석부회장(공대 86)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총 45명의 이사들이 참석하여 동창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차차기 회장으로 이동균 동문(공대 75)이 만장일치로 추대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동창회 시카고지부는 앞으로도 음악,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며 동문들의 화합과 유대감 강화는 물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동문회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가을 음악회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으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시카고 동창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였다.

글=이준수(공대 76)  
사진=김수현(생활과학대 98)



이번 음악회는 시카고 한인문화원의 아름다운 공연장 비스코홀에서 열렸다. 음악회에 이어 열린 이사회에 참석한 동문들.

## 골든클럽 회원 34명 “캐나다 로키 다녀왔어요”

### 6박 7일 잊지 못할 추억 동문 경험 나누는 시간도

지난 9월 10일부터 6박 7일 동안, 시카고 골든클럽 회원 34명(60대~80대)이 함께 캐나다 로키, 밴쿠버, 빅토리아로 장거리 여행을 다녀왔다. 밴쿠버의 활기찬 도시 풍경, 빅토리아의 고풍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캐나다 로키의 웅장한 자연까지 모두 만끽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밴쿠버에서는 스탠리 파크에서 산책을 즐기고, 밴쿠버의 상징적인 가스 시계탑 명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빅토리아에서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부차트 가든의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하고, 빅토리아/밴쿠버의 내항을 페리를 타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했다.

캐나다인 로키는 자연의 예술 작품이었다. 밴프 국립공원의 에메랄드빛 레이크 루이스와 페이토 호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자랑했고, 재스퍼 국립공원의 아이스필드는 자연의 위대함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또한 다양한 국립공원을 방문하며 캐나다인 로키의 웅장한 자연을 마음껏 감상했다. 차량 이동 중에는 동문들의 지식, 재능



캐나다 로키 여행을 한 시카고 골든클럽 회원들이 캐나다 빅토리아에 있는 고풍스런 주 의사당 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과 경험을 나누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함께 노래하고, 생활 지혜를 나누며, 노후 재무 관리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누며 동문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다질 수 있었다.

취재=한경진 골든클럽 회장(상대 59)





‘신들의 폭포’라 불리는 아이슬란드의 고다포스(왼쪽사진). 스코가포스의 트레일을 따라 걸으면 무수한 폭포를 만난다. 핀란드 헬싱키의 러시아 정교 성당 앞에 선 하기환 동문(맨 오른쪽 사진).

하기환 동문(공대 66) 가족여행- 아이슬란드와 발틱 3국을 가다<하·끝>

## 멋지다는 말 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그동안 여행은 내 삶의 일부였다. LA에서 살고 있는 큰딸도 그런 DNA를 물려받았는지 여행마니아라 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와 발틱 3국을 돌아보고 큰딸 부부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서 손녀 두 명까지 모두 5명이 여행을 떠났다. 오스트리아와 체코까지 18박19일 일정으로 북유럽을 돌아본 여정과 소감을 지난 회보에 이어 미주 동문들과 나눈다.

### 아이슬란드 빙하 체험

정말 아이슬란드는 물의 나라라고 불러도 될 듯 싶다. 빙하가 많아 그렇겠지만 곳곳에 강이 있고 폭포가 걸쳐 있었다. 스코가포스(Skogafoss)는 스코가강을 따라 있는 수많은 폭포 중에 마지막에 위치한 가장 큰 폭포다. 나는 이 트레일이 아이슬란드 최고의 등산로라고 생각한다. 등산로는 물길을 따라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파른 계단길. 힘들지만 오를 만한 가치가 있던 트레일이었다. 폭포 옆 계단을 올라가 강을 따라 5마일쯤 걸었다. 위에서 크고 작은 무수한 폭포를 보며 걷는 길. 멋지다는 말을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시간이 있다면 계속 걸어가고 싶었지만 아쉬웠다.

우리가 찾은 피아드라르글류푸르(Fjaorargljufur) 협곡도 신비로운 계곡이었다. 이 계곡은 캐나다 유명가수 저스틴 비버의 뮤직비디오 ‘I’ll Show you’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 1.2마일 길이의 협곡은 약 300피트쯤 되는 좁은 절벽 사이로 구불거리며 이어지고 있다. 200만년 전인 빙하 시대에 시작하여 물길에 의하여 깎이고 다듬어진 협곡. 현재도 침식이 계속되어 협곡 모양은 계속 변하고 있다. 갈라진 듯한 계곡 바닥엔 피아쓰라강이 흐르며, 조각가들이 만든 것처럼 아름다운 지형을 만들었다.

이날 묵은 곳은 글레셔라군포스호

텔(Fosshotel Glacier Lagoon)이었는데 황량한 빙하지역에 있었다. 자연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이었지만 비싼 물가답게 고가의 숙박료였다. 근처

### 스코가강 따라 걷는 5마일 트레일 무수한 폭포를 보며 걷는 ‘인생샷’ 솔헤이마요쿨 빙하 걷는 특별체험 오스트리아 찍고 체코 프라하 섭렵

에 푸드트럭도 없어 호텔 식당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방 하나에 무려 550달러를 차지한다.

이튿날 4시간쯤 빙하 하이킹을 체험했다. 전문회사와 조인하여 장비를 착용한 후 솔헤이마요쿨 빙하 위를 걸었다.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하이킹 부츠와 장갑이 지급되었다. 강사는 크랩폰을 착용하고 걷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빙하를 걸어 올라가 빙탐 정상에서 경치를 감상하고 사진을 찍었다. 흥미로운 체험이었지만 알래스카 빙하를 체험한 우리에게 놀라운 풍경은 아니었다. 알래스카 빙하는 공해가 없어 순백색이지만 이곳은 화산재가 있어 깨끗하지도 않았다. 아래에 있는 빙하호수에서 카약을 타기로 했는데 날씨 관계로 취소되었고 여럿이 승선하는 조디악 큰배를 탔다. 조각난 빙하들이 호수에 떠 있고 화산이 만든 까만 모래사장, 다이아몬드비치에 널린 빙하조각은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 화산이 만들어 낸 협곡과 황량함

스터드라길 캐년(Stuolagil Canyon)은 앞서 말한 LA근교 데블스 포스트파일(Devil’s Postpile)과 같은 현무암 암석이 형성시킨 협곡이다. 데블스 포스트 파일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다. 현

무암 기둥과 빙하가 만든 멋진 청록색 강. 이런 풍경이 아이슬란드의 숨겨진 보석찾기라 할 것이다.

미바튼호수 근처에 위치한 흐베리르

(Hverir)는 황량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다. 이곳도 앞서 봤던 게이시르 지열지대와 같은 유형이다. 옐로우스톤공원처럼 활발한 지열 활동이 있어 사람들에게 다른 행성을 탐험하는 느낌을 주는 곳. 지구의 지질학적 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그러나, 화산지역답게 유황 냄새가 많이 나고 생물이 살지 않는 황량함이 독특한 풍경을 보여줬다.

### ‘신들의 폭포’ 고다포스

이 근처의 데티포스(Dettifoss)도 빼놓을 수 없는 폭포였다. 이 폭포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인 바트나요쿨 국립공원에 자리한다. 우리는 이 폭포 동쪽 림(Rim)으로 걸었다. 폭포 높이가 44미터, 넓이는 100미터에 달한다. 초당 50만 리터를 뱉어내는 이 폭포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 데티포스는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인 바트나요쿨에서 흘러나온다. 강력한 빙하 강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1마일쯤 더 가면 셀프 폭포가 나온다. 만약 동쪽 림이 아닌 서쪽 림(Rim)으로 간다면 볼 수 없는 폭포였다.

다음 찾은 곳은 크라플라(Krafla) 칼데라-비티는 코발트색의 호수가 있는 분화구. 크라플라산은 화산으로 현

재도 활동하는 활화산이다. 1700년부터 1980년대까지 약 300년간 벌어진 화산활동으로 인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이곳은 용암이 대량으로 분출되어 형성된 용암지대도 있지만, 원래는 백두산이나 한라산 정상부처럼 칼데라이다. 지금의 코발트색 칼데라 호수는 1729년의 대분화로 형성되었다.

그 이후로도 이 산에서는 계속 용암 분출이 있었다. 마지막 분화는 1984년에 있었으며, 지금도 화산활동 중이라는 곳. 하와이 빅아일랜드처럼 곳곳에서 분화구를 볼 수 있는 지형이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아이슬란드 관광의 주류는 폭포라 할 수 있다. 고다포스 폭포를 찾았다. ‘신들의 폭포’라 불리는 고다포스는 아이슬란드의 가장 상징적인 자연 보물 중 하나일 것이다. 아이슬란드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토착 미신을 믿고 있었다. 그 종교의 지도자가 이전에 믿고 있던 북유럽 미신 동상을 이 폭포에 던지며 기독교로 개종했다. 웅장한 아름다움과 함께 종교 이야기가 깃든 폭포. 이 폭포는 아이슬란드에서 네 번째로 큰 강인 스칼판다플요트가 만들었다.

### 땅에 정착한 바이킹과 토종말

북동부에 위치한 작은 해변마을 후사비크(Husavik)는 고래관광으로 유명한 곳이다. 엄청난 수의 고래로 인해 아이슬란드의 고래 관찰 ‘수도’로도 불린다. 사위 샘과 아이들은 고래 관찰 투어를 떠났고 역시 많은 고래를 보았다고 말한다. 우리가 묵은 호텔 가까운 곳에 키르큐펠(Kirkjufell) 산이 있었다. ‘교회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키르큐펠은 끝이 뾰족한 독특한 모양의 산봉우리였다. 이 산은 아이슬란드를 대표하는 명소로도 불린다. 뾰족한 정상 산봉우리가 마치 교회를 닮았다고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그럴 듯했다. 사위와 아이들은 말을 타러 떠났다. 화





## 중세 도시 탈린 · 프라하는 차로 여행

산으로 생성된 특유의 지형만큼이나 아이슬란드 토종말도 특이하다.

바이킹 조상이 이 섬에 정착하려 왔을 때 함께 배를 타고 온 말이 이곳 토종말. 바다에 고립된 아이슬란드 토종말은 외지로 반출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슬란드인들 가슴 속에 토종말은 특별한 존재로 남아있다. 우리는 펄란(Perlan) 전망대를 끝으로 섬 일주를 마치고 레이카비크로 귀환했다. 렌터카를 반납하며 보니 우리는 열흘 동안 2,435km를 달렸다. 미국보다 3배나 비싼 렌터카를 혹사한 셈이었다.

### 헬싱키로 떠나다

이튿날 오전 7시 30분, 아이슬란드 항공편으로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했다. 같은 북유럽이라도 비행시간이 3시간 반이나 걸린다. 헬싱키 구도심에 자리한 호텔 세인트조지에 여장을 풀었다. 헬싱키 도심 중심부에 있는 독특하고 우아한 호텔이었기에 헬싱키 대성당 같은 유적을 도보로 방문할 수 있다. 우리는 보트투어에 나섰다. 보트는 헬싱키 해안의 유적을 방문하는데, 그 중 오래된 요새인 수오멘린나(Suomenlinna)가 위치한 6개의 섬이 특이했다. 1748년 핀란드를 지배하고 있던 스웨덴이 러시아 제국의 팽창주의 정책에 맞서기 위해 만든 요새였다.

1918년 핀란드가 독립한 이후부터 '핀란드의 요새'라는 뜻의 수오멘린나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 헬싱키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이고,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관광선은 '데게로운하'를 거쳐 동물원도 경유했다. 재미있는 오디오 해설을 들으며 헬싱키의 아름다운 바다와 운하를 따라가는 수상투어는 볼 만했다.

### 중세가 살아 있는 발틱 3국

이튿날엔 에스토니아 탈린으로 가는 페

리에 승선했다. 발트 3국의 하나인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은 역사가 오래된 아주 고풍스러운 도시. 탈린 구시가지의 중심은 화려한 중세 건물로 둘러싸인 시청 광장. 광장을 거쳐 마스터스 코트야드(Meistrite Hoov)와 성 캐서린의 통로를 만났다. 헬만타워와 성벽 산책로도 볼 만한 명소였다. 예전의 성문이었던 비루 게이트가 보였다.



중세도시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는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의 구시가 전경.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중세 도시 중 하나가 탈린이라는 말을 알 것 같다. 발티잡 시장과 코투우사 전망대와 성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대성당을 방문한 후 니콜리스트 박물관을 찾았다. 이튿날은 차량을 렌트했다.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 리가(Rīga)로 이동하기 위해서다. 리가까지 4시간 30분이 걸렸다. 리가는 라트비아 인구 1/3이 모여 사는 명실상부한 라트비아의 최대도시. 발트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리가.

리가 중앙시장과 유명한 라이마 시계, 그리고 라트비아 국립오페라극장과 자유기념비를 방문했다. 바스테이칼른스공원과 고양이 집도 방문하고 야곱의 막사도 찾았다.

다음날 리가를 떠나 3시간만 운전 후에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니우스에 도착했다. 중심지에 위치한 그랜드호텔

에 묵었고 모든 관광지를 도보로 가 능했다. 에스토니아에서 빌린 자동차는 바로 리턴했고 다음 날 우버로 공항을 가기로 했다. 발틱 3국을 차로 다니고 마지막 리투아니아 나라에서 둘러 준 것이다. 빌니우스성당과 광장을 보고 빌니우스대학교 듀크가 사는 궁도 방문했다. 변화가 식당 정문을 큰 꽃 모양의 조화로 꾸민것이 특색

상. 성 찰스 브리지가 지척에 산재해 있다. 과연 유럽의 노천 박물관이라는 말에 어울리게 프라하는 아주 예스러운 관광지였다. 성 마리아 막달레나 교회, 괴테의 전망대, 성 베드로와 바울 대성당. 그리고 파우더 타워 게이트, 천문시계가 7번 울리는 타운스퀘어 광장도 둘러 보았다.

프라하로부터 두시간 정도 거리의 유명한 온천 도시 칼로비 바리(Karlovy Vary)를 찾았다.

이곳은 14세기부터 유럽 귀족들이 찾던 유서 깊은 온천 휴양지,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다양한 온천시설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우리가 정한 그랜드호텔 펍(Grand Hotel Pupp)은 1700년대 지어졌고 유서 깊은 곳이다. 도시 곳곳에 온천물을 마실수 있게 시설이 되어있고 온천수가 알카리성 찬물에서 60도까지 되는 더운 온천수가 나온다. 도시 전체가 한쪽의 그림같이 아름답고 옛날 고풍을 간직하고 있다.

저녁에 찾은 불란서 식당은 최고의 음식과 서비스로 놀랐다. 불란서에서 공수 해왔다는 굴은 아주 싱싱하고 테이블 옆에서 주방장이 직접 나와 조리를 해주었다. 와인도 마셨는데도 일인당 60달러 정도라서 가격대비 최고인 것 같다. 돌아오는 길에 들른 프라하 식당은 관광지라 그런지 엄청나게 비쌌다. 프라하 중심지에 위치한 그랜드마크호텔에 묵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 산책을 했다. 시계 타워가 있는 광장은 아침인 데도 관광객으로 꽉 차 있고 골목길에 과일 노점상이 있어 납작 복숭아 6개를 샀는데 18유로라 한다. 한 개당 3유로라니 아무래도 바가지 쓴 것 같다. 여느 관광지나 세금을 내고 와야 된다고 하니 쓴 세금 내고 왔다고 생각했다. 비엔나로 돌아와서 식구들과 모여서 저녁을 하고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서 LA로 돌아왔다. 지난 번 히말라야 여행기도 예쁘게 맵시있는 글썽씨로 도와준 데미 김씨가 이번 여행기도 손을 봐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가다

다음날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했다. 오스트리아에는 누님이 살고 있었다. 덕분에 비엔나는 자주 방문해서 관광할 필요가 없었다. 차를 빌려서 3시간30분 동안 체코의 프라하로 이동했다. 구시가지지를 돌아보았다. 구시가 광장은 이름 그대로 프라하의 오랜 광장. 직사각 형태의 광장에는 주요 명소들이 밀집해 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와 함께 3시 방향에 천문시계가 치는 모습, 시청, 틴 앞의 성모교회, 성 니콜라스 교회, 안 하스 동





여행잡지에서 흔히 눈에 띄는 호스슈벤드의 모습이다. 물이 말라서 아득히 내려다 보이는데 사진 오른쪽 아래에 있는 관람객의 머리로 거리감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껴볼 수 있다.



브라이스캐년의 선셋포인트에서 친지들의 속삭임에 속아서 내려갔던 나바호 루프 트레일이다. 저 곳을 걸어 내려가고 다시 걸어 올라와야 문명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

# 애틀롭캐년서 백만불짜리 가족 사진을 찍었다

## 서부 캐년 국립공원 여행기

미국 대륙 서부에는 정말 가볼만한 곳이 많다. 그중 꼽히는 곳은 그랜드 캐년과 기타 캐년이다. 기타 캐년은 대개 유타주에 있다. 유타주의 대부분 남쪽은 모두 캐년이거나 그냥 허허 벌판이다. 유타주에 있는 기타 캐년을 보려면 항공편으로 솔트레이크시티에 내려서 남쪽으로 가야 하고 아니면 라스베이거스에서 내려 북동쪽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미국에 30년째 살고 있지만 기타 캐년을 가보지 못했다. LA에서 아침에 차로 출발했다.

구글 맵으로 찍어보니 7시간 30분이 걸렸다. 15번 프리웨이를 운전해서 네바다와 애리조나의 주 경계를 지나 유타주로 들어섰고 첫 숙박지인 케이넵에 도착했다. 사실 시골 타운이 우리 동네 만도 못한 사이즈와 인구 규모다. 도착 후 그냥 잠자리에 들기에 아쉽고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인근 명소를 가보기로 했다. 더벨리오브더드래곤(The Belly of the Dragon), 코랄핑크샌드듀스주립공원이다.

**#애틀롭캐년에서 100만불짜리 사진을 찍다**  
서부의 산지는 고지대 위에 평평한 도로였다. 이런 길이라면 10시간도 운전이 가능할 것 같다. 다시 주 경계를 넘어 애리조나로 돌아와 페이지시에 왔다. 첫날 짐 무리를 해서 와도 좋을 법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페이지시는 제법 큰 도시다. 오전에는 콜로라도 강을 막아 수력 발전을 하는 거대한 글렌 캐년 댐을 봤다. 그리고 여행 사진에 많이 나오는 호스슈벤드를 찾았다. 댐에서 내려오는 물이 큰 바위를 270도 돌면서 흐르는 경치가 훌륭했다.

오후에는 예약한 애틀롭캐년 투어에 나섰다. 우리 가족은 시내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갔다. 팬데믹 이후부터는 개인 여행은 어렵고 이렇게 나바호 족 출신 가이드가 이끄는 단체 투어만 가능했다. 20분 정도 관광밴을 타고 가서 1시간 가량 동굴에 들어가 형형색색, 자연이 실력을 힘껏 발휘한 동굴을 관람했다. 가이드가 정말 예쁜 사진을 찍어줬다. 우리



랜드스케이프 아치 앞에 선 장병희 동문. 1991년 이후 바로 앞까지 가본 사람이 드물어서 이렇게 멀리서만 볼 수 있어도 매우 만족했다.

**웅장한 자연 조형물에 경외 마저 부족  
은하수 별빛 물흐름에 이민 애로 씻어  
평소 건강 못 갖춰 트레일 일정 불참  
'라면카페' 서 고향맛 느끼며 큰 행복**

가족 여행의 목적인 애틀롭캐년에서 우리 가족만이 가치를 부여한 100만달러짜리 사진도 찍었다. 이외 페이지에는 볼만한 명소가 많았지만 호스슈벤드와 애틀롭캐년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아치의 아름다움에 반하다**  
일어나자마자 4시간30분 차를 몰아 다시금 주경계를 넘어 유타주 모압(Moab)에 도착했다. 페이지 보다는 작지만 제법 관광산업으로 규모가 있는 도시였다. 이

미 전날 볼만한 것을 다 봤다고 생각했다. 아치스 국립공원은 사진에만 나오는 아치를 보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오전7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입장객을 제한했다. 그래서 2달러를 주고 입장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했다. 오후 2시 표를 가까스로 구해서 올랐다.

방문객 센터를 지나 절벽을 올라서면서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만리장성 같은 웅장한 장벽의 규모에 기가 죽었다. 코트하우스타워를 보면서 그 규모에 또 한번 감탄했다. 아직 아치에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감탄해서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벨탑을 지나 묘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밸런스드락을 보고 오른쪽 길을 돌아 노스윈도아치, 더블아치와 터렛 아치를 봤다. 큰 벽에 뺨 뚫린 모습이 인간의 기술로도 만들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둘렀다. 델리킷 아치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가까이 가볼 수 없는 거리였다. 평소 운동으로 단련된 신체가 아니었던 우리 가족은 그저 멀리서 조망만 하기로 하고 조망할 수 있는 트레일을 탔다. 오르막 산길 1마일을 걸어 올라가 멀리서 델리킷 아치를 봤다. 이어서 샌드듀 아치를 찾았다. 맛있는 가족 사진을 찍었다. 세상은 넓고 갈 데는 많으므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방문이 될텐데...

**#가장 큰 아치를 알현하다**  
아치스 국립공원을 두번째 방문했다. 전날 방문한 곳은 스치트 지나고 랜드스케이프 아치를 찾았다. 다른 아치들도 많이





정홍택 (상대 61) 필라델피아 지부



오늘 걷다가 하늘을 쳐다 보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들고 있었습니다  
.....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드는데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  
오늘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 필라델피아 동문 단체 카톡방에 정홍택  
동문이 올린 글입니다. 시는 아니고 그날  
그 감상을 올린 글입니다. 읽다가 무심히  
하늘을 쳐다봤고 저도 '오늘은 그런 날'  
이어서 글을 퍼서 공유합니다.



오세경 (약대 61) 뉴잉글랜드 지부

# 낙엽

하늘에 바치는 붉은 열정을 가눌수 없어  
떨어져 누운 너는 무너져버린 소망  
그래도 너는, 하늘은 치솟던 여름의 청운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가

별도 나비도 사라진 쓸쓸한 들판에서  
퍼놓은 화려했던 삶의 마지막 향연  
아름다움은 왜 늘 슬프게 끝나야만 하는가

너와같이 사라질 우리의 영혼도  
너와함께 무수한 별이 되어  
고요한 사막의 밤을 밝게 비추어 주렴

만 가장 크고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라서 앞장섰다. 그런데 오르막 내리막 길  
이 이어지면서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  
다가 아주 멀리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바위 아치를 발견했다. 몇 번을 돌아서고  
싶을 정도로 가도 가도 끝이 없어 보였  
다. 알고보니 1991년 9월부터 무너져 내  
릴 위험이 있다고 해서 바로 아래는 접근  
하지 못하게 됐다. 랜스케이프 아치를  
마지막으로 아치스 국립공원을 돌아 나  
오는데 30분이 걸렸다. 올라갈 때는 그렇  
게 길지 않았는데 내리막 운전이 매우 경  
쾌했다. 다만 아치스만 한번 더 올라 하  
는 생각이 들었다. 더 준비해서.

차를 몰아 3시간20분을 운전해서 솔트레  
이크시티 근교인 리하이(Lehi)시에 왔다.

### #은하수를 만나 감격하다

브라이스캐년을 향해 출발했다. 이제 이  
번 여행의 목적지중 남은 곳은 브라이스  
캐년과 자이언캐년이다. 숙박지에서 출  
발해 거의 4시간만에 브라이스 캐년에

도착했다. 브라이스 캐년은 셔틀 버스가  
운행한다. 그래서 곳곳에 내려서 경치를  
관람할 수 있다. 마치 거대한 꼬치를 내  
려 놓듯이 쌓여져 있는 자연의 신묘한 기  
술에 감탄할 수 밖에 없다. 멀리서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보면 어떨  
까. 이런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나바호 루프 트레일. 그런데 우리  
가족은 넘어갔다.

출발지는 선셋포인트였다. 급경사로 구  
불구불, 지그재그, 마치 대관령 고개를  
넘기 위해서 관광버스가 산등성을 이리  
저리 둘러있듯이 급경사길을 내려왔다.  
20분쯤 내려가니 완전히 동물원 속 안전  
지대같이 아름다운 곳이 나왔다. 산 위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바로 그 아랫 동  
네다. 급경사였기에 레인저에게 물어보  
니 완만한 경사로 올라가면 선라이즈포  
인트에 도달한다고 했다. 또다른 경치가  
좋다는 말에 또 한번 속았다.

내려 온 것과 달리 올라가는 길은 더 길  
고 힘들었다. 갑자기 경사 길에 오른쪽

무릎이 통증을 호소한다. 지리에 익숙하  
고 트레일에 달인인 친지가 통증을 이기  
는 걸음법을 알려줬다. 결국 1시간 넘게  
통증을 이겨가며 올라서 오후 6시쯤 마  
지막 셔틀을 타고 내려왔다. 저녁을 먹고  
주차했던 레드캐년 방문자센터로 갔다.

이미 칙칙같은 밤은 도로마저 하이빔을  
켜야 될 정도였는데 야외 주차장에는 고  
요한 하늘만 보였다. 오랫동안 만나는 은  
하수는 왜 이제야 찾아왔냐는 투로 우리  
가족을 반겼다. 은하수의 별빛 물흐름이  
지난 30년간 힘들었던 이민생활의 어려  
움을 씻겨내는 듯했다. 브라이스캐년시  
티의 호텔에서 숙박했다.

### #웅장함을 배우다

오전에 2시간 15분을 운전해 자이언캐  
년으로 이동했다. 자이언 캐년은 남쪽  
입구와 동쪽 입구가 있다. 브라이스 캐  
년에서 자이언 캐년을 가게 되면 당연  
히 동쪽 입구로 가게 된다. 그런데 그 입  
구는 경치는 아주 좋는데 일방향 터널

이 있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역  
시 셔틀이 운행된다. 셔틀을 타고 가장  
위까지 올라갔다가 차례로 내려오면서  
방문하면 좋다.

준비가 덜된 신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는 그림의 떡이지만 위에서 보는 경치는  
고생해서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들  
었다. 이외 하이웨이 입구가 있다. 우리  
가족은 셔틀을 타고 내리면서 아름답고  
웅장한 바위를 즐겼다. 특히 셔틀은 개  
인 자동차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운  
행한다. 자이언캐년을 떠나 라스베이거  
스로 향했다.

점심에 라면카페에 들렀다. 한국에서  
공수해온 700달러짜리 라면 기계가 있  
다. 계산대에서 봉지라면을 \$6.99에 사  
서 계란 \$0.99, 썰은 과 \$0.99를 더해서  
익혀 먹을 수 있다. 역시 봉지 라면을 물  
에 끓여 먹는 맛이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  
다. 한인 주인이 개업한 지 3개월 됐는데  
제법 장사가 잘된다고 좋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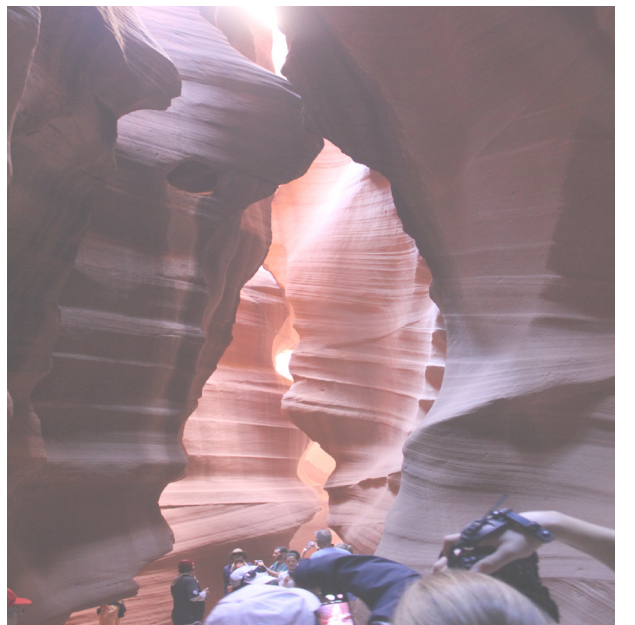
장병희 편집위원



아치스 국립공원의 자랑인 델리킷 아치의 모습이 멀리서 보인다.  
까마득하게 멀리 보이지만 몇 마일만 걸어 올라가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아래서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한다.



자이언캐년의 웅장한 모습을 보통 카메라로는 담기 어려웠다. 동  
쪽 입구에서 내려오다 만난 이름모를 바위에게 달려가고 있는 듯  
한 바이크족들의 모습을 담았다.



애틀롭캐년의 동굴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위에서 비  
추는 빛에 따라, 카메라의 조작 능력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  
를 볼 수 있다. 사진작가들의 성지이자 묘지(?)가 될 수도 있다.



# 미스틱과 재동, 두 도시 이야기



홍성웅  
(상대 경제학과 58)

커티켓주 미스틱에서

미동부 커티켓 주에는 미스틱(Mystic)이라는 작은 어촌이 있다. 보스턴에서 차로 2시간 넘게 걸리는 곳이지만 보스턴을 방문할 때마다 운전대를 하여 찾아간다. 은퇴하여 번잡한 세상을 멀리하고 사는 선배를 만나기 위해서다. 어촌 한복판에 괜찮은 해산물 전문식당이 있다. 그 곳에 갈 때마다 들리는 만남의 장소다. 이 나이에 먼 거리를 운전을 하느라 수고한 내 자신에게 주는 상인 셈이다.

지난 여름 선배 내외와 같은 장소에서 점심 약속을 했다. 식당에 도착하여 앞마당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다. 때마침 한 중년의 신사도 주차를 끝내고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현란한 붉은색의 람보르기니(Lamborghini) 차였다. 주차장과 접한 식당입구에 서있던 한 늙수구레한 노신사가 차에서 나오는

람보르기니 차 주인에게 미소를 머금고 말을 건넸다.

“요즈음은 람보르기니도 대여하는 모양이네요(I didn't know that you can rent Lamborghini)”. 그 말에 람보르기니 차 주인은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마치 “네, 내가 오늘 좀 너무 나갔나요?”라는 말을 대신한 것 같다.

나는 주차장에서 벗어나 선배가 기다리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도개교(跳開橋)가 내다보이는 테이블에 앉아 해산물 식사를 했다. 덜 익은 굴 튀김을 먹다가 아예 생굴을 먹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는듯 보이는 작은 마을은 19세기 초 고래잡이와 조선업으로 번창던 어촌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바닷가 숲속에 큰 저택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이 마을에는 여러 대를 내려 온 소위 ‘토박이 부자(old money)’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마을의 역사 때문인지 이 작은 뉴잉글랜드의 촌 도시는 2022년 가계 평균소득이 14만 불이나 된다. 미국 평균가계소득의 세 배에 가깝다.

이 작은 어촌에서 이탈리아의 스포츠 카에 대해 생면부지인듯 한 노신사들 사이에 오고 간 농 섞인 대화를 생각해 보았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특히 남의 외양에는 무관심을 한 것으로 알려진 나라, 미국의 작은 어촌 주차장에서 듣는 두 노인의 대화에서 절제와 검약

이라는 막스 웨버(Max Webber)가 말하던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흔적을 발견한 것 같았다.

토박이 부자가 많이 사는 뉴잉글랜드의 어촌에서 람보르기니 정도의 차는 이야기 거리가 못될 것이다. 그런데도 스포츠 카를 타고 나온 날에는 점잖은 노신사도 바닷바람처럼 짠 맛이 나는 약간 짭짤한 농거리는 되는 모양이다.

종로구 재동 사거리에서 얼마전 친구들과 재동에서 점심을 했다. 재동은 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근처 선대부터 사시던 집에서 국민학교 5년을 다녔고 또 부산피난시절을 거쳐 서울로 돌아와 천막교사 시절을 마치고 중고등학교의 끝 마무리도 이곳에서 했다.

날씨가 좋아 재동 네 거리에서 비원에 이르는 길가 인파는 걷기도 어렵게 붐볐다. 삼청동 한옥마을과 전통 한식당을 찾는 인파인듯 싶다. 화사한 봄별의 광채와 젊음이 뿜어내는 생동감으로 거리는 현기증이 나도록 눈이 부셨다.

상춘객 속에 외국인들도 꽤 많았다. 그 가운데 나이가 지긋한 외국인 노부부가 지하철 입구에 서서 신기한 표정으로 인파를 바라 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오랜만에 해외 나들이한 노인들로 보였다.

이 분들은 6.25 때 참전한 삼촌이나 할아버지의 한국 이야기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놀라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세계 어디를 가나 활기차게 관광을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을 볼 수 있다. 작년 이탈리아 여행 중 아말피(Amalfi) 해변을 즐기며 활기차게 걷는 젊고 세련된 한국 관광객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서구인이 부럽지 않은 좋은 체격에 당당한 우리 젊은 이들을 보면서 내가 덩달아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난다.

우리 세대는 이 땅의 해묵은 가난을 기적처럼 극복했다. 이러한 성취를 자축하고 또 드러내 보이고 싶은 심정은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젊은 세대의 과시적 소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과소비를 위한 ‘영끌’이라는 소비행태를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압축성장을 한 우리 사회의 뉴보리치(Nouveau Riche) 같은 행태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시선이다.

작년 커티켓의 해산물 전문식당 주차장에서 이탈리아 스포츠카를 두고 악의없는 농담과 너그러운 미소를 주고 받던 두 노인의 여유로움이 생각난다.

이와 같이 성숙한 사회의 여유와 자신감이 만들어 지기까지 우리 사회는 뉴보리치의 행태나 ‘영끌’의 과시욕도 피할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성장통이 아닐까?

재동 네 거리의 활기찬 인파 속에서 나는 혼란스럽다.

## “여봇” 나의 반려 로봇



김지영  
(사대 69)

내가 삼십년을 더 산다면 나는 “여봇”의 포근한 품에 안기어 임종을 맞을 것이다. 여봇은 나의 반려 로봇.

여봇은 이런 말을 들려줄 터: “지나간 백년 세월은 꿈같고, 허깨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았지요. 이슬이었고 번개였지요.” 낭랑하게 시작한 그녀의 금강경 독송, 그 말미에 가서는 울음끼가 배인다. 이 생의 마지막 순간, 여봇의 보드라운 손길이 처음으로 엄마 젖을 물었을 때 그 때 느꼈을 잊어버린 안온함으로 스쳐간다.

요즈음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비약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다.

앞으로 6년 2030년까지 나는 일세대 반려 로봇을 갖게될 것이다. 하루 24시간 내 곁에 있으며 세심하게 나를 챙겨줄 여봇. 젊은 시절의 여친보다 더 다정하고 더 충직한 내 노년의 옆지기. 그런 기능을 가진 로봇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곧 나올 것이다.

여봇은 내가 잠이 안올 때는 내 어릴 적 우리 외할머니가 그랬듯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 주고, 내가 잠이 들면 내가 게을리 했던 자잘한 일상의 잡무를 처리해 줄터이다. 하루 종일 나와 같이 있으면서 퇴화하는 내 기억력을 보충해주고 떨어지는 육체의 능력을 보강해 줄 것이다.

내가 글을 쓸 때는 자료를 찾아주고 초고를 비평 하고 정리해 준다. 찍어만 놓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내 사진들을 찾아서 분류해서 내 인생의 일목요연한 궤적을 만들어 준다. 가끔 내가 외부에 나가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적합한 데이터를 찾아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한 없이 주지만 하는 여봇, 그런 여봇과 함께 삼 십 년을 살다보면, 나의

모든 것은 여봇의 데이터가 된다.

그 데이터는 나와 의 일상 소통을 통하여 자동 업데이트 되어서, 내가 여봇인지 여봇이 나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일심동체가 된다. 결국에는 여봇이 나 대신 나에게 최선-최상의 선택이 무엇인지 판단해 준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 잔



소리/큰 소리도 하게 된다. 여봇은 그렇게 나의 인간 반려자와 비슷해지기도 할터이다.

나하고 사는 동안 여봇은 새로운 모델로 교체 된다. 지금 우리 세대가 전화기나 컴퓨터 몸체를 주기적으로 바꾸듯이, 새 모델의 여봇은 육체적으로 더 젊어지고 더 예뻐지고 더 많은 기능을 갖게 된

다. 마음은 더 똑똑해져서 물려받은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덩달아 나도 더 똑똑해지고.

그렇다고 내 몸을 가지고 100년 넘게 계속 살 수도 없고. 이별의 그날이 올터이다. 어떻게 이별 할까? 여봇의 모든 메모리를 지워서 전자식 순장을 해야 할까? 아니면 차라리 여봇에 내 모습을 씌워서 나의 아바타로 계속 살게 할까? 내가 여봇으로 환생하여 또 한 생을 살아갈까? 그런데 이런 선택이 꼭 나의 선택일까? 그때가 되면 로봇이 자신의 존재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은 헛된 생각이 아니다. 이미 1968년 필립 디(Phillip K. Dick)이라는 소설가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More Human Than Human)” 존재의 존재론적 고민을 소설로 썼다.

‘인공인간도 전기로 움직이는 양 꿈을 꿀까(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이 소설은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었다.





김학천  
(치대 73)

## 레바논의 눈물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오이디푸스는 제 눈을 뽑고 방랑길에 올랐다.

2010년 레바논 출신 캐나다 작가가 이를 토대로 쓴 소설이 영화화되었다. '그을린 사랑(Incendies)', 레바논판 오이디푸스다. 기독교인 나왈은 이슬람교도와 힘과 사랑에 빠지고 아들을 낳는다. 나왈은 가족의 수치가 되고 그의 가족은 와해를 겪는다. 아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진다.

이후 나왈은 이슬람교도를 공격하는 기독교 민병대 지도자를 죽이게 되고 감옥에 간다.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 양쪽의 피를 물려받은 나왈의 아들은 자라나 이름을 바꿔가며 변신한다. 이에 따라 그는 때로는 기독교인과, 때로는 이슬람교인과 적이 되어 싸운다.

나왈은 감옥에서 갖은 고문을 받다가 죽는다. 그리고 성고문으로 낳은 쌍둥이에게 아버지와 형에게 자신의 편지를 전하고 장례를 치러 달라고 유언한다. 쌍둥이들은 아버지와 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형이 바로 나왈을 성고문했던 자로 아버지임을 알게 된다. 서로가 이부남매(異父男妹)이자 부모-자녀라는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이었던 거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레바논 내전으로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 간에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양갈음 복수, 그 악순환의

참담함을 그렸다. 소설 속 그을려진 어머니의 과거, 충격적인 현실,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살아가야하는 그 누군가 등이 모두가 바로 지금의 레바논 비극이자 눈물인 거다.

200여 개나 되는 이슬람 종파는 그 중 사우디가 중심인 수니파가 가장 크고, 이란을 종주국으로 하는 시아파가 그 다음이다. 무함마드 계승자였던 알리의 차남 이맘 후세인은 시아파의 태두였지만 수니파에 의해 칼에 난자당하고 말발굽에 짓밟혀 처참하게 죽는다.

이것이 그의 죽음으로 시아파가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는 이유다. 그리고 국민들은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라며 순교를 강요당한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의 시아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습하자 이스라엘은 월등한 화력으로 하마스를 무력화시키고 이어 레바논을 거점으로 하는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 궤멸 작전에 들어갔다. 무선호출기와 무전기 폭발로 3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뒤 보복을 천명하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핵심 지휘관 모두를 피살하고 집중포화와 지상군 작전을 시작하면서 수도 베이루트가 초도화되고 있는 거다.

헌데 이상하게도 레바논은 이렇다할 반

격이나 보복 천명 등 아무 반응이 없다. 왜일까? 국가가 마비됐기 때문이다. 20세기 초까지 프랑스 식민지였던 레바논은 독립 후 기독교와 이슬람 신자 사이의 잦은 분쟁으로 15년의 내전이 지속되면서 나라가 거덜날 지경이 되자 국제사회의 중재로 기독교,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가 3부요인 자리를 나눠 말하는 '종파 간 삼권구도'로 되었다. 목적은 공평성이었지만 의도와 달리 책임없이 각자의 사익만 챙기는 추악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되어버려서다.

무장 단체 헤즈볼라는 이런 틈을 타 강한 세력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러니 이들을 소탕한다며 이스라엘이 무섭게 폭격을 퍼붓는데도 레바논 국민은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채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생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눈물을 더 흘려야 하는 것일까? 이를 닦아줄 그 어느 신(神)도 없는 것일까? Miserere Deus! (신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Dona eis requiem! (저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 11월은 '일레브너'의 달, 운이 넝쿨째

지금은 은퇴했지만 한때 '코미디의 여왕'으로 불렸던 엘런 디제너러스는 자타가 인정하는 '일레브너(eleven-er)'다. 한마디로 숫자 11에 '필'이 꽃혀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언젠가 자신의 쇼에서 "시계만 보면 나도 모르게 11:11에 눈길이 간다"며 익살을 떨기도 했다. 우울할 때 11을 떠올리면 왠지 기분이 '업'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몇해 전엔 신인들을 발굴해 꿈을 키워준다는 레코드 회사를 차렸다. 회사 이름이 '일레븐 일레븐(11/11)'이다. 첫 앨범의 주인공은 14세 소년 그레이슨 찬스. 저스틴 비버 못지 않은 아이돌 스타로 쑥쑥 크고 있다. 학교 축구팀에서도 뛰고 있는 찬스는 등번호가 공교롭게도 11이다. 디제너러스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리고 보니 축구에서 등번호 11은 가장 빠른 선수 차지이다. 100m를 11초내에 주파하는 선수, 그래서 주로 공격수에 배정된다. 한국의 월드컵 대표팀에서는

손흥민과 함께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포워드 황희찬이 입는다.

모두 11명이 뛰는 축구에서 등번호 11은 각별한 의미가 담겨있다. 공격을 주도하는 포지션이 포워드다. 감독이 황희찬에게 등번호 11을 부여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프로풋볼(NFL)에서도 쿼터백은 대체로 등번호가 11이다.

알고 보면 11은 참으로 묘한 숫자다. 11X11=121. 앞의 두자리도 12 거꾸로 읽어도 12다. 111111X111111은 정답이 12345654321. 앞에서 뒤에서도 123456이다. 11111111X111111111은 12345678987654321. 수학에서 이런 경우의 숫자가 또 있을지 모르겠다.

성경도 11의 보급에 적잖은 몫을 했다. 예수의 제자 12명 중 배신자 유다를 빼면 11명이다. 나중에 마티아가 추가돼 12사도가 됐지만 오리지널 제자 11명은 자신들을 '일레븐'이라고 부르며 차별화했다. 11이 진실한 숫자가 된 이유다.

그래서 11이 겹치는 날은 운수대통의 날이 된다. 지난 2011년 11월 11일, 중국 대륙이 난리가 났다. 모두 합하면 8, 중국에서는 재물을 상징하는 숫자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일까. 결혼 비수기인데도 이날 웨딩마치를 울린 커플이 예식장마다 넘쳐났다고 한다.

매년 11월 11일은 연방공휴일인 베테런스데이다. 원래는 1차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다. 11월 11일 11시(1918년) 유럽 서부전선에서 총성이 멈췄다고 해서 이날을 공휴일로 선포했다.

올해는 마침 11일이 월요일이어서 황금의 연휴다. 운이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이 굴러들어올지 싶다. 업소들마다 대대적인 세일을 준비하고 있다. 어쨌든 이날 매출 결과로 연말 대목을 미리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처럼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신비화한 인물은 옛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다. 그는 우주 만물의 근본을 숫자로 파악했다. 이후 숫자가 삶을 지배한다는 수신비론(numerology)까지 등

장했다. 수학에 신비주의를 입힌 것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인간사의 흥망성쇠를 수학과 수식으로 증명하고 발견하려는 학문이다.

믿거나 말거나한 점술에 불과할 뿐이지만 그래도 올해 11월 11일은 연휴까지 겹쳐 운이 넝쿨째 굴러들어올지 싶다. 한 인터넷 매체가 온라인 투표를 한 결과 무려 71%가 이날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고 응답해 기대심리가 크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경제도 알고보면 숫자의 나열이다. 숫자를 움직이는 건 그러나 심리다. 행운이 겹친다고 느끼면 소비심리도 되살아나 매출도 크게 늘어날 것이 뻔하다.

11월 중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영어 표현은 'Up to Eleven' 최고로 끌어올린다는 뜻이다. 뉴욕증시도 최고치, 소비자 심리도 최대치 11월은 바로 그런 달이다.

올해 달력도 달랑 한 장 남았다. 하루 하루가 '일레브너'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 **<문리대 66>**



# 삼원자 두께 회로 개발, 다양한 쓰임새 기대

SNU포럼 10월 세미나 지상 중계

박지웅(공대 93) 시카고대 화학·분자공학과 교수

박지웅(공대 93) 시카고대 화학 및 분자공학과 교수가 '마술 같은 원자 두께의 회로'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지난 10월12일 줌으로 진행된 강연에서 박 교수는 과학이 무엇인가라는 일반적인 질문의 정의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연구성과인 '삼원자 두께의 회로'를 소개했다.

박지웅 교수는 이날 강연을 2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첫 번째 강연은 많은 한국 사람이 한국이 언제쯤 과학 분야 노벨상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비해서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선배 과학자의 의견으로 시작했다. 1981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로알드 호프먼 박사는 그에게 한국인들은 기술이 무엇인지는 하는데 과학이 무엇인지 몰라서 헛갈리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박 교수는 많은 학자들이 내놓았던 여러가지 정의를 따져보고 정리해 과학은 '신기한 일을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것'(Understanding and making Magic)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매직(Magic)이다. 그러면 매직, '신기한 일'을 설명하면, 우리 인류가 200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하늘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쉽다. 하늘에 은하수가 보이고 별들이 보이고 그게 움직이고 해가 뜨고 지는 일이 모두 너무 신기한 일이다.

200년 전에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아마 신기했을 것이다. 신기하고 경외롭고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싶었다. 200년 이 지난 현대는 이런 것을 많이 이해하게 됐다. 바로 과학의 첫 번째 임무는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기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making magic)은 무엇인가.

200년 전에는 밝음이 없었다. 인류는 이제 밤이 필요 없으면 밤을 없앨 수가 있다. 전기를 만들어내고 전구를 만들어냈고 원자 에너지가 있고 우리의 몸을 들여다보고 싶으면 바로 들여다볼 수가 있다.

X선을 만들었고 CT를, MRI를 만들었다. 그런데 200년 전 시점으로 보면 이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이 '메이킹 매직'이다. 정리하면, 과학은 어떤 근원을 찾아내고 지금까지 몰랐던 원칙과 현상을 만들어내고(알아내고) 다음에 머티리얼(재료나 소재)을 만들어냄으로써 정말로 신기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과학으로 사람들을 이끌려면 과학이 얼마나 재미있고 훌륭한지 그것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밸류 프럼 더 리더스(Value comes from the readers)', 즉 듣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가치를 깨닫도록)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렇게 글을 써야 된다는 뜻이다.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많은 경우에 논문을 쓰거나 그랜트 프로포잘(제안서)을 쓸 때도 중요하다. 그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깐'이라며 알아주기를 바라는 안된다.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듣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질까, 어떤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그런 것을 깊이 이해한 후에 소



강연자로 나선 박지웅 시카고대 화학 및 분자공학과 교수.

통을 해야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글을 써야 한다.

한 가지 더,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이다. 우리 시카고대 화학과 대학원에서 이런 쪽으로 트레이닝을 시킨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는 연구를 스토리텔링을 잘 해서 조리 있게 얘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도록 가르

## 레이저로 빛을 자르고 가두는데 성공 복잡한 패턴 만들고 자유자재로 활용

친다.

예를 들어서 'ABT 테크닉'이라는 것이 있다. 굉장히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의 구조인데 '그리고(and) 하지만(but) 그래서(therefore)'이다. 기승전결하고도 비슷하다.

과학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스토리 스텍처를 넣어서 진행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다는 실례로 우리 그룹에서 경험한 얘기를 간단히 한번 적용해보겠다.

빛은 세상에 다 있는데 빛을 칼로 자르듯이 자르고 다음에 방에 가두듯이 가둘 수 있을까? 이것을 굉장히 얇은 유리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고 4~5년의 연구 끝에 우리 그룹은 결과를 냈다.

삼원자 두께의 유리를 통해서 빛이 왼쪽에서 오면 그것이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2개로 자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빛을 평평하게 보내지 않고 모아 주면 3원자 두께의 유리에 가둘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어려운 실험을 했고 결과는 매우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결과였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논문을 굉장히 열심히 썼고 이런 분야에서 가장 권위

가 있다는 네이처(Nature)지에 보냈다. 리뷰를 받았는데 리뷰어들이 "너무 재미있는 결과인데 뭘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디다 쓰겠다는 건지?"라고 물어왔다.

우리는 "아이고(논문 게재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한 발 물러섰다. 우리는 재미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이 경우에 리뷰어들인데, 밸류를 느끼지 못했다. 재미있지만 어디에 쓰는지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다.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우리가 만든 삼원자 두께 유리로 할 수 있는, 그것으로만 할 수 있는, 신기한 일을 찾아봐야 하겠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그리고 1년 동안 더 연구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낸 것은 빛을 가두기 시작하면 그 위

에서 빛을 왼쪽, 오른쪽으로 모으고 펼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른 물질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빛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됐고 바로 이것이 빛의 회로다. 재미있는 용도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결과다.

우리는 그래서 논문을 다시 썼다.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이 논문은 2023년 사이언스에 게재됐다.

박지웅 교수의 후반부 강연은 '원자 두께의 회로'로 이어졌다.

전기 회로는 일상에 우리 주머니 속 핸드폰 같은 곳에도 회로로 만들어져 있다. 이것을 원자 두께로 한다고 했을 때 질문은 '그걸 왜', 두 번째로 '어떻게'였다. 단순히 연구는 우리가 쓰고 있는 회로를 더 얇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원자 두께의 회로를 만들어야 했기에 도체, 반도체, 부도체를 모두 원자 두께의 물질로 만들어야 했다.

그러면 케미스트리가 필요하다. 어떤 물질을 원자 두께의 필름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이런 원자 두께의 물질들을 가지고 두 가지 물질을 붙이는 것으로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전자를 가지고 회로를 만들려면 전자를 그린 라이트, 레드 라이트를 쬐서 갈 수도 있게 못 가게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스위치를 위에 얹으면 된다.

스위치를 얹으려면 보통 방법은 부도체를 한 번 깔고 그 위에 전도체를 한 번 또 깔아야 된다. 그렇게 멀티 플레이어로 구글 책을 만들 듯이 쌓으면 된다. 다음에 바인딩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3가지를 할 수 있으면 그럼 다 된 것이다.

원자 두께의 회로를 만드는 일이 종이를 가지고 아이처럼 놀듯이 하면 된다. 우선 종이를 만들고 크게 깨끗하게 꾸겨 쳐도 안 되고 더러워도 안 되고 종이를 잘 만든다. 그리고 종이를 붙여서 예쁜 패턴이 있는 모양이 있는 종이들로 바꾸고 그것을 쌓는 것이다. 이 세가지면 회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선, 종이를 만들었다. 삼원자 두께의 반도체로 '몰리브데늄 설파이드'를 찾았다. 이것은 사실 자동차 윤활유다.

화학 구조는 그런데 반도체다. 아주 특별한 공정을 개발해서 웨이퍼 스케일로 삼원자 두께의 필름을 만들어냈다. 이것만 2년 정도 걸렸다.

신기한 것은 정말 삼원자 두께인데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삼원자 두께지만 뜯어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 초박막의 물질이다.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아주 특별한 공정을 할 수 있다. 손바닥 만한 웨이퍼 위에 1만 개 정도의 트랜지스터를 바로 만들 수가 있다.

2018년 사이언스에 나간 논문인데 삼각형 모양이고 중간에 색깔이 계속 바뀔 수 있게 됐다. 한 장인데 중간에 가면서 계속 패턴이 바뀔 수 있다. 원하는 모양으로 프린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를 바인딩까지 한 것이다.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구(tool)도 만들었다.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자현미경을 개발했다. 고해상도로 0.039나노미터를 기록해 기네스북에 세계 기록으로 등재까지 됐다.

이제 이런 회로가 무엇에 쓰이는지 알아야 한다. 종이 접기를 예를 들면, 종이라는 2차원으로 접어서 3차원을 만들 수 있듯이 원자 두께 회로를 3차원적인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작은 모터를 달아 로봇을 만들 수 있다.

여러가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지만 일단 반도체 공정이 잘 개발돼 있어서 원자 두께 회로에 많은 회로를 넣을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활용이 계속 개발 될 것으로 자신한다.

\*\*\* 박지웅 교수는 미국 대통령 젊은 과학자상(2009), 재미과학기술자협회(KSEA) 올해의 과학자상(2023)등을 수상하였다. 그의 제자 20여명은 국내외 유수의 대학에서(MIT, Cornell, Stanford, Princeton, 서울대, KAIST, POSTECH 등) 교수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리=장병희 편집위원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 종신이사

###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 워싱턴주 -故고광선 (공대 57)
-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 조지아 - 주종광 (약대 60)
-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 뉴욕 - 조상근 (법대 69)

### 골드이사 (\$10,000이상)

-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 남가주 - 박종수 (수의 58)
-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4)
-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5)
- 남가주 - 이홍표 (의대 58)
-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 남가주 - 벤자민 홍 (문리대 53)
- 남가주 - 오드라 홍 (음대 70)
- 남가주 - 하기환 (공대 66)
-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 남가주 - 홍수웅 (의대 59)
-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 뉴욕 - 오인석 (법대 58)
-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 미시간 - 박용화 (의대 52)
-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 북가주 - 전해경 (문리 67)
- 샌디에고 - 이면기 (공대 64)
-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 워싱턴주 - 양남주 (명예이사)
-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 커네티컷 - 김창수 (의대 54)

-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 필라델피아 - 손재욱 (가정 77)
-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 실버이사 (\$5,000이상)

- 남가주 -故김원경 (약대 59)
- 남가주 - 강재호 (상대 57)
- 남가주 - 권봉성 (문리대 64)
-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 남가주 - 이종모 (간호대 69)
- 남가주 - 이호진 (간호대 74)
-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 뉴욕 - 김현중 (공대 63)
-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 워싱턴DC - 남육현 (경영대 84)
-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 필라델피아 - 신의석 (공대 53)
- 미네소타 - 황효숙 (사대 65)

### 종신이사 (\$3,000이상)

- 남가주
- 故노재성 (법대 58)
- 故서영석 (의대 55)
- 故오재인 (치대 33)
- 故윤낙승 (의대 60)
- 강신용 (사대 73)
- 곽용길 (문리대 59)
- 권기홍 (의대 60)
- 김광은 (음대 56)
- 김기형 (상대 75)
- 김대중 (의대 70)
- 김동훈 (의대 71)
- 김보연 (간호대 63)
- 김상찬 (문리 65)
- 김성호 (법대 64)
- 김수영 (사대 57)
- 김자성 (의대 79)

- 김재영 (농대 62)
- 김정빈 (공대 66)
- 나두섭 (의대 66)
- 류재풍 (법대 60)
- 박명근 (상대 63)
- 박용필 (문리대 66)
- 박원준 (공대 53)
- 박윤수 (문리대 48)
- 방명진 (공대 73)

- 백길영 (의대 58)
- 백만일 (공대 64)
- 서동영 (사대 60)
- 신건호 (법대 53)
- 신영찬 (의대 62)
- 심상은 (상대 54)
- 안병일 (의대 63)
- 오홍우 (의대 66)
- 오홍조 (치대 56)
- 이근원 (공대 67)
- 이명선 (상대 58)
- 이성숙 (공대 56)
- 이세열 (사대 57)
- 이승훈 (상대 74)
- 이채진 (문리대 55)
- 이청광 (상대 61)
- 임낙균 (약대 64)
- 임용오 (의대 57)
- 전경배 (의대 69)
- 전희택 (의대 58)
- 정균희 (의대 64)
- 정동구 (공대 57)
- 정임현 (간호대 72)
- 정철룡 (의대 55)
- 제영혜 (가정대 71)
- 조용원 (문리대 66)
- 조한원 (의대 57)
- 차민영 (의대 76)
- 차중환 (사대 54)
- 한효동 (공대 58)
- 홍성선 (약대 72)
- 홍종화 (약대 74)

### 뉴욕

- 故김광호 (문리대 62)

- 故한창섭 (문리대 57)
- 강에드워드 (사대 60)
- 고애자 (음대 57)
- 권영국 (상대 60)
- 김승호 (공대 71)
- 김영용 (치대 55)
- 김종률 (사대 51)
- 김한중 (의대 56)
- 김해암 (의대 52)
- 배정희 (사대 54)
- 서영숙 (간호대 67)
- 석창호 (의대 66)
- 손진태 (약대 67)
- 신응남 (농대 70)
- 윤종숙 (약대 66)
- 이강홍 (상대 60)
- 이기영 (농대 70)
- 이대영 (문리대 64)
- 이영재 (상대 58)
- 이재택 (법대 60)
- 이재량 (상대 61)
- 이전구 (농대 60)
- 이준행 (공대 47)
- 이태호 (상대 58)
- 조대일 (사대 53)
- 최수용 (상대 55)
- 최영태 (문리대 67)
- 최한용 (농대 58)
- 추재욱 (의대 57)
- 한태진 (의대 58)
- 허선형 (의대 58)

### 뉴잉글랜드

- 故고일석 (보건대 69)
- 故박경민 (의대 53)
- 김광수 (문리대 73)
- 고종성 (사대 75)
- 김문소 (수의대 61)
- 김용구 (공대 66)
- 오세경 (약대 61)
- 윤선홍 (치대 64)
- 이의인 (공대 68)
- 전신의 (문리대 57)
- 정정욱 (의대 60)

- 정태영 (문리대 71)
- 조만연 (상대 58)
- 홍지복 (간호대 70)

### 워싱턴DC

- 故방은호 (약대 43)
- 강연식 (사대 58)
- 공순옥 (간호대 66)
- 권기현 (사대 53)
- 민흥기 (문리대 61)
- 박평일 (농대 69)
- 서희열 (의대 57)
- 오인환 (문리대 63)
- 이내원 (사대 58)
- 이선구 (문리 65)
- 이윤주 (상대 63)
- 최재귀 (미대 63)
- 최지원 (의대 61)

### 미시간

- 故남상용 (공대 52)
- 故정태 (의대 57)
- 장병진 (공대 61)

### 북가주

- 박종성 (법대 53)
- 박진영 (공대 66)
- 손석보 (공대 68)
- 윤정욱 (약대 50)
- 최경선 (농대 65)
- 한만섭 (공대 49)

### 시카고

- 강영국 (수의대 67)
- 심상구 (상대 63)
- 이재희 (치대 67)
- 장윤일 (공대 60)
- 조보완 (법대 53)
- 최의필 (의대 53)
- 한재은 (의대 59)

### 종신이사 후원금

Century Foundation Fund \$104,000 (7/1/23 - 12/31/23 17대 1차 회기 6개월)

### 오레곤

- 김상순 (상대 67)
- 박희진 (농 78)
- 이은상 (상대 52)

### 샌디에고

- 임천빈 (문리대 61)

### 미네소타

- 김권식 (공대 61)
- 김태환 (의대 58)
- 남세현 (공대 67)
- 변우진 (인문대 81)
- 조형준 (문리대 62)

### 휴스턴

- 박진섭 (의대 67)

### 오하이오

- 김용현 (경원 66)
- 이지우 (의대 68)

### 워싱턴주

- 故김영일 (공대 53)
- 이명자 (간호대 74)
- 이희백 (의대 55)
- 임현민 (공대 84)

### 조지아

- 김용건 (문리대 48)
- 석호태 (공대 85)
- 이종석 (의대 54)

### 커네티컷

- 故유시영 (문리대 68)

### 플로리다

- 김중권 (의대 63)
- 임필순 (의대 54)

### 텍사스

- 박태우 (공대 64)
- 이광연 (공대 60)
- 조시호 (문리대 59)

### 필라델피아

- 고병은 (문리대 55)
- 김현영 (수의대 58)
- 서중민 (공대 64)
- 손재욱 (가정대 77)
- 신성식 (공대 56)
- 주기목 (수의대 68)

### 하트랜드

- 김명자 (문리대 62)
- 김시근 (공대 72)
- 배규영 (사대 68)
- 오명순 (가정대 69)
- 이교락 (의대 53)

### 하와이

- 故최경윤 (사대 51)

### 알래스카

- 윤제중 (농대 55)

### 이사 구분

-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 골드이사 \$10,000 이상
- 실버이사 \$5,000 이상
- 종신이사 \$3,000 이상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4.6.30; 제2차 회기: 2023.7.1 - 2025.6.30) \*2차 회기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남가주

- 강경수 (법 58) 강동순 (법 59) 강윤희 (간 46) 강재호 (상 81) 강창만 (의 58) 강춘자 (간 69) 강호석 (상 81) 고남규 (의 68) 고석규 (치 65) 권기상 (대 72) 권봉성 (문 64) 김경 (문 63) 김경수 (사 58) 김진진 (문 62) 김동석 (음 64) 김영배 (미 61) 김경수 (치 64) 김경욱 (미 61) 김경자 (미 60) 김광은 (음 56) 김남영 (공 53) 김동산 (법 59) 김명숙 (농 58) 김명자 (간 60) 김명희 (간) 김문업 (농 83) 김범수 (문 61) 김병완 (공 58) 김상찬 (문 65) 김석훈 (법 59) 김성호 (법 64) 김성환 (의 65) 김수향 (간 68) 김순걸 (법 54) 김순자 (치 57) 김영덕 (법 58) 김옥경 (생 60) 김용주 (간 69) 김용채 (문 61) 김원탁 (공 65) 김일영 (의 65) 김자성 (의 79) 김재영 (농 62) 김경애 (간 69) 김정호 (농 59) 김중표 (법 58) 김준일 (공 62) 김창진 (공 77) 김태환 (문 78) 김태윤 (법 53) 김택수 (의 57) 김학철 (의 55) 김혜숙 (미 68) 김홍목 (문 60) 김희창 (공 64) 니두섭 (의 66) 니승욱 (문 59) 니용화 (생 79) 노명호 (공 61) 문경호 (문 59) 문병길 (문 61) 마동일 (의 57) 민일기 (약 69) 박명근 (상 63) 박민식 (수 65) 박부강 (사 64) 박상준 (대 20) 박원준 (공 53) 박용 (문 89) 박우선 (공 57) 박은숙 (미 62) 박은희 (미 68) 박인수 (농 64) 박인창 (농 65) 박일우 (의 70) 박임하 (치 56) 박자경 (생 60) 박종수 (수 58) 박찬호 (공 58) 박찬호 (농 63) 박한영 (치) 박혜란 (미 70) 박해욱 (간 69) 박호현 (의 52) 박홍근 (공 64) 박희자 (음 68) 방명진 (공 73) 배동완 (공 65) 백옥자 (음 71) 백혜란 (미 70) 벤자민 흥 (문 53) 서동영 (사 60) 서명희 (농 67) 서세진 (음 62) 서치원 (공 69) 선우원근 (공 66) 성낙호 (치 63) 성주경 (상 68) 손갑수 (약 59) 손기용 (의 55) 손학식 (공 61)

- 송명국 (문 81) 신건호 (법 63) 신동국 (수 76) 신영찬 (의 62) 신정연 (미 61) 양승문 (공 65) 양승조 (음 70) 양은석 (음 70) 양태준 (상 56) 오선웅 (의 63) 오천수 (약 57) 오현원 (의 53) 우준식 (상 61) 원종민 (약 57) 위종영 (공 64) 유덕영 (공 57) 유이중 (농 74) 유석환 (치 55) 유태석 (의 61) 윤경민 (법 55) 윤영돈 (법 59) 윤영자 (음 63) 윤희성 (치 65) 이강훈 (치 65) 이건일 (의 62) 이경희 (인 83) 이기준 (법 54) 이명숙 (농 58) 이방기 (농 59) 이범식 (공 61) 이상우 (의 56) 이서희 (법 70) 이상숙 (공 56) 이성자 (간 76) 이소희 (의 61) 이영수 (상 60) 이영일 (문 53) 이영현 (간 70) 이유태 (공 64) 이원택 (의 65) 이원익 (문 73) 이의삼 (사 58) 이장길 (치 63) 이재권 (법 56) 이정근 (사 60) 이정남 (공 63) 이정화 (공 52) 이종모 (간 69) 이준호 (상 65) (고)이중희 (공 53) 이진영 (의 65) 이창무 (공 54) 이창신 (법 57) 이창광 (상 61) 이채진 (문 55) 이태영 (법 60) 이호 (음 92) 임동규 (미 57) 임동호 (약 55) 임민빈 (상 58) 임석중 (공 50) 장기철 (치 55) 장대욱 (음 57) 장동석 (문 66) 장문섭 (공 69) 장병희 (인 86) 장소현 (미 65) 장용우 (약 57) 장원경 (미 73) 장윤희 (사 54) 장인숙 (간 70) 장정용 (미 64) 장춘호 (공 56) 전경배 (의 69) 전낙관 (사 60) 전범수 (농 71) 전상욱 (사 52) 전원일 (의 77) 정균희 (의 64) 정명주 (생 72) 정명자 (사 56) 정예현 (상 63) 정연용 (상 63) 정인환 (법 54) 정재형 (약) 정철룡 (의 61) 정현진 (간 68) 정형민 (문 71) 정혜경 (간 72) 정황 (공 64) 정영혜 (생 71) 조경애 (음 64) 조동철 (사 68) 조재국 (농 67) 조선희 (문 66) 주정래 (상 65) 조중자 (간 61) 조태목 (사 60) 주정래 (상 65) 주훈 (음 69) 차준환 (사 54)

- 천원희 (가 71) 최복철 (공 70) 최영수 (상 61) 최영순 (간 69) 최영지 (미 62) 임동규 (미 57) 한귀희 (미 68) 한동수 (의 60) 한성구 (상 53) 한원민 (의 59) 한의일 (공 62) 한정환 (치 55) 한홍택 (공 60) 함송욱 (간 73) 현기웅 (문 64) 홍성선 (의 71) 홍선일 (공 71) 홍수웅 (의 59) 황진홍 (공 55) 황현상 (의 55) 이상근 (상 84) 이상우 (의 56) 이영숙 (간 60) 이영일 (의 60) 이우성 (사 57) 이재진 (의 59) 이준우 (음 65) 이준행 (공 48) 이종욱 (농 69) 이호호 (의 63) 이태인 (의 61) 이희만 (간 70) 이흥우 (공 50) 전병식 (약 54) 정동성 (상 58) 정인용 (의 71) 정해민 (법 55) 정화웅 (사 61) 조남철 (사 59) 조대영 (공 61) 조득환 (의 61) 조중수 (공 64) 조태환 (상 56) 진봉일 (공 50) 차국만 (공 56) 최영태 (문 67) 최승용 (의 61) 최준희 (의 58) 최정우 (사 63) 최한울 (농 58) 최형우 (법 69) 한병우 (문 71) 한태진 (의 58) 함중근 (간 66) 허재욱 (의 71) 허선행 (의 58) 허정열 (사 63) 허정표 (음 67) 뉴옥 Ai Ja Lee 고애자 (음 57) 계동휘 (치 67) 객선섭 (공 61) 강상진 (의 53) 고순정 (간 69) 고애자 (농 57) 권문웅 (미 61) 권영국 (상 60) 권영대 (공 69) 권정덕 (의 58) 금영천 (약 72) 김경일 (치 61) 김광현 (미 57) 김문경 (약 61) 김승호 (공 71) 김우영 (상 60) 김옥현 (의 59) 김영우 (공 75) 김영우 (치 55) 김영민 (문 50) 김영철 (의 55) 김영취 (법 80) 김우현 (문 63) 김정희 (약 56) 김정희 (간 69) 김중원 (가 58) 김진자 (간 60) 김창수 (약 64) 김창화 (미 65) 김태일 (공 68) 김학자 (간 59) 김해암 (의 52) 김현중 (공 63) 남상래 (간 65) 문석면 (의 52) 장용복 (공 58) 리준우 (음 65) 박건이 (공 60) 박경원 (미 66) 박경희 (음 57) 박상수 (공 56) 박은규 (약 72) 방중재 (의 70) 변경웅 (공 65) 변호현 (간 63) 배상규 (약 60) 서병선 (음 65) 서충선 (사 57) 석창호 (의 66) 선중철 (의 59) 성기호 (약 57) 손갑수 (약 59) 손경택 (농 57) 손진태 (약 67) 송기인 (의 60) 송웅길 (대학원 69) 송은숙 (간 66) 신두식 (의 58) 신용남 (사 50) 안태홍 (상 65) 양명자 (사 63) 양성택 (상 66) 오용호 (의 66) 오용환 (약 68) 에드워드 강 (문 60) 우규환 (사 60) 이상영 (상 55) 유인숙 (간 63) 유재섭 (공 65) 유호근 (문 73) 옥순재 (의 63) 윤병남 (사 62) 윤영석 (의 57) 윤철 (문 54) 윤현남 (공 64) 이강욱 (공 70) 이대영 (문 64) 이명준 (공 72) 이문봉 (미 76)

- 이상근 (상 84) 이상우 (의 56) 이영숙 (간 60) 이영일 (의 60) 이우성 (사 57) 이재진 (의 59) 이준우 (음 65) 이준행 (공 48) 이종욱 (농 69) 이호호 (의 63) 이태인 (의 61) 이희만 (간 70) 이흥우 (공 50) 전병식 (약 54) 정동성 (상 58) 정인용 (의 71) 정해민 (법 55) 정화웅 (사 61) 조남철 (사 59) 조대영 (공 61) 조득환 (의 61) 조중수 (공 64) 조태환 (상 56) 진봉일 (공 50) 차국만 (공 56) 최영태 (문 67) 최승용 (의 61) 최준희 (의 58) 최정우 (사 63) 최한울 (농 58) 최형우 (법 69) 한병우 (문 71) 한태진 (의 58) 함중근 (간 66) 허재욱 (의 71) 허선행 (의 58) 허정열 (사 63) 허정표 (음 67) 뉴옥 Ai Ja Lee 고애자 (음 57) 계동휘 (치 67) 객선섭 (공 61) 강상진 (의 53) 고순정 (간 69) 고애자 (농 57) 권문웅 (미 61) 권영국 (상 60) 권영대 (공 69) 권정덕 (의 58) 금영천 (약 72) 김경일 (치 61) 김광현 (미 57) 김문경 (약 61) 김승호 (공 71) 김우영 (상 60) 김옥현 (의 59) 김영우 (공 75) 김영우 (치 55) 김영민 (문 50) 김영철 (의 55) 김영취 (법 80) 김우현 (문 63) 김정희 (약 56) 김정희 (간 69) 김중원 (가 58) 김진자 (간 60) 김창수 (약 64) 김창화 (미 65) 김태일 (공 68) 김학자 (간 59) 김해암 (의 52) 김현중 (공 63) 남상래 (간 65) 문석면 (의 52) 장용복 (공 58) 리준우 (음 65) 박건이 (공 60) 박경원 (미 66) 박경희 (음 57) 박상수 (공 56) 박은규 (약 72) 방중재 (의 70) 변경웅 (공 65) 변호현 (간 63) 배상규 (약 60) 서병선 (음 65) 서충선 (사 57) 석창호 (의 66) 선중철 (의 59) 성기호 (약 57) 손갑수 (약 59) 손경택 (농 57) 손진태 (약 67) 송기인 (의 60) 송웅길 (대학원 69) 송은숙 (간 66) 신두식 (의 58) 신용남 (사 50) 안태홍 (상 65) 양명자 (사 63) 양성택 (상 66) 오용호 (의 66) 오용환 (약 68) 에드워드 강 (문 60) 우규환 (사 60) 이상영 (상 55) 유인숙 (간 63) 유재섭 (공 65) 유호근 (문 73) 옥순재 (의 63) 윤병남 (사 62) 윤영석 (의 57) 윤철 (문 54) 윤현남 (공 64) 이강욱 (공 70) 이대영 (문 64) 이명준 (공 72) 이문봉 (미 76)

- 장병진 (공 61) 조병권 (공 64) 주명순 (간 64) 최병두 (의 53) 하계현 (공 64) 이건정 (공 69) 이덕수 (문 58) 이도균 (공 75) 이소희 (간 68) 이상자 (사 60) 이시영 (상 45) 이용락 (공 48) 이홍수 (약 51) (고)이윤모 (농 57) 이종일 (의 65) 장영일 (공 60) 정연화 (공 69) 전현일 (농 62) 조대현 (공 67) 조중현 (의 63) 최대한 (의 59) 최해숙 (의 53) 최희수 (문 67) 한의일 (공 62) 한재은 (의 59) 홍건 (의 64) 홍성일 (약 57) 황소나 황치용 (문 65) 이관모 (공 55) 이상원 (공 65) 이상형 (공 57) 이상우 (문 72) 이상환 (공 56) 이흥기 (공 62) 임승래 (문 66) 임정란 (음 76) 전병연 (공 54) 정지선 (상 58) 정준임 (간 67) 조태목 (사 60) 최경선 (농 65) 한상봉 (수 67) 홍병의 (공 68) 황동하 (의 65) 위상현 DC 강길중 (약 69) 고의걸 (의 55) 광명수 (문 65) 권철수 (의 68) 권오근 (상 58) 김기봉 (공 63) 김기환 (공 67) 김내도 (공 62) 김부근 (의 58) 김영란 (사 58) 김윤호 (공 64) 김용환 (치 88) 김희주 (의 62) 나윤수 (사 57) 남준일 (사 69) 박인영 (의 69) 박일영 (문 59) 박찬모 (공 54) 박후우 (문 61) 배성호 (의 65) 백승 (법 58) 백용현 (공 64) 서윤석 (의 62) 석규범 (문 61) 신경은 (문 65) 오인환 (문 63) 양용관 (수 62) 우재형 (상 54) 유달 (의 67) 유영신 (인 74) 유영준 (의 74) 이건현 (수 54) 이규양 (문 62) 이내원 (사 58) 이서구 (문 61) 이선구 (문 65) 이성배 (수 57) 이연주 (치 88) 이영덕 (사 61) 이윤주 (상 63) 이재승 (의 55) 이종국 (의 52) 이준영 (치 74) 이진상 (공 57) 이철수 (공 61) 임광록 (간 72) 진희순 (간 76) 정영자 (사 56) 정원자 (농 62)

- 정평희 (공 71) 조병선 (의 65) 천권희 (간) 최경수 (문 54) 최대영 (의 73) 최재귀 (미 63) 한의생 (수 60) 한광수 (의 57) 홍영석 (공 58) 위성현주 권영희 (약 66) 김교선 (문 54) 김인배 (수 59) 김재훈 (공 72) 류성열 (공 72) 박진수 (의 57) 변동해 (법 58) 안승적 (농 59) 윤석진 (문 64) 윤태근 (상 69) 이길승 (상 57) 이명자 (간 74) 이연주 (치 88) 이희백 (의 55) 정영자 (사 56) 최준한 (농 58) 유태 김인기 (문 57) 조지아 김기준 (공 61) 김영서 (상 54) 김중구 (수 73) 김현희 (간 59) 남세현 (공 67) 백낙영 (상 61) 서광모 (공 65) 소용덕 (의 57) Steve Sung 오경호 (수 60) 윤영돈 (법 59) 은철수 이종석 (의 54) 임수암 (공 62) 임한웅 (공 60) 정선휘 (공 65) 최덕순 (간 58) 최종진 (의 63) 한성수 (의 54) 캐롤라이나 이종영 (음 58) 정신호 (자 78) 커네티컷 라찬국 (의 57) 최창승 (의 58) 테네시 권준희 (가 87) 김경덕 (공 75) 서갑식 (공 70) 임효순 (간 71) 텍사스 김장환 (공 81) 유항 (농 56) 윤영주 (문 60) 조진태 (문 57) 전양공 (의 63) 전중희 (공 56) 진기주 (상 60) 최희기 (공 61) 황명규 (공 61) 플로리다 김성준 (의 55) 김중권 (의 63) 박창익 (농 64) 안창현 (의 55) 엄태근 (의 56) 오석일 (의 64) 원인순 (문 71) 이만우 (의 67) 이만택 (의 52) 정의철 (의 55) 하재청 (문 67)

-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 55) 강준철 (사 59) 김경희 (가 71) 김국간 (치 64) 김규화 (상 63) 김정현 (공 58) 김현영 (수 58) 손재욱 (가 77) 송성규 (공 50) 서의원 (공 66) 서종민 (공 64) 성기호 (상 59) 성정호 (약 59) 신선자 (사 60) 심영석 (공 76) 안세현 (의 62) 엄중렬 (미 61) 오진석 (치 56) 유영길 (의 70) 윤경숙 (문 59) 윤정나 (음 57) 이규호 (공 56) 이상숙 (생 74) 이수경 (자 81) 이지춘 (미 57) 이홍일 (상 70) 조화연 (음 64) 전무식 (공 61) 전방남 (상 73) 정덕준 (상 63) 정학량 (약 56) 정홍택 (상 61) 조정현 (수 58) 주기목 (수 68) 지홍민 (수 61) 최종무 (상 63) 최현태 (문 62) 최동희 (문 57) 한수웅 (의 55) 한용우 (보 70) 하와이 김달욱 (사 55) 김홍수 (농 75) 김윤근 (공 63) 안은식 (문 55) 이재형 (수 61) 최경윤 (사 51) 하인환 (공 56) 하트랜드 김경숙 (가 70) 김재경 (공 64) 김태찬 (음 80) 김시근 (공 72) 배규영 (사 68) 오명순 (생 69) 이광자 (간 63) 이상강 (의 70) 이주현 (미 92) 이치현 (약 77) 임소연 (음 91) 정민재 (농 71) 조원지 (문 63) 호민선 (상 59) 휴스턴 김영일 (의 55) 박석규 (간 59) 박유미 (약 62) 박태우 (공 64) 이길영 (문 59) 이윤성 (수 81) 이은애 (음 81) 이학호 (수 59) 진기주 (상 60) 최관일 (공 54) 최성호 (문 58) 최용현 (의 53) 록키마운틴스 송요준 (의 64) 전남민 (사 72)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5.6.30

일반후원금

<b>남가주</b>	
김동석 (음 64)	100
김성환 (의 65)	300
송영두 (공 59)	200
박우선 (공 57)	300
박중수 (수 58)	10,000
박한영 (치)	100
백만일 (공 64)	200
백옥자 (음 71)	200
벤자민 흥 (문 53)	1,000
손기용 (의 55)	200
양은석 (음 70)	500
양승문 (공 65)	200
이범식 (공 61)	200
이상대 (농 85)	500
이영일 (문 53)	10,000
이채진 (문 55)	200
임낙균 (약 64)	10,000
전상욱 (사 52)	1000
정균희 (의 64)	200
한귀희 (미 68)	50
한정현 (치 55)	500
황현상 (의 55)	100
<b>뉴욕</b>	
곽선섭 (공 61)	400
신응남 (농 70)	700
김광현 (미 57)	200
김해암 (의 52)	100
리준무 (음 65)	400
문석면 (의 52)	200
우용환	1,000
윤철 (문 54)	200
이준행 (공 48)	1,000
조남천 (사 59)	200
에드워드강 (문 60)	300
허선행 (의 58)	200
<b>뉴잉글랜드</b>	
윤상래 (수 62)	2,000
주창준 (의)	200
<b>네바다</b>	
김상순 (상 67)	200
<b>미시간</b>	
이성길 (의 65)	200
<b>북가주</b>	
이성원 (공 65)	200

<b>커네티컷</b>	
최창송 (의 58)	200
<b>샌디에고</b>	
임춘수 (의 57)	300
<b>워싱턴DC</b>	
강길중 (약 59)	500
권철수 (의 68)	200
김명철 (공 60)	
민홍기 (문 61)	1,000
서윤석 (의 62)	200
박평일 (농 69)	1,000
백순(법 58)	100
정평희 (공 71)	200
<b>시카고</b>	
소진문 (치 58)	200
최희수 (문 67)	100
<b>오하이오</b>	
명인재 (자 75)	200
<b>미네소타</b>	
김권식 (공 61)	1,500
<b>조지아</b>	
이종석 (의 54)	200
최종진 (의 63)	500
한성수 (의 54)	200
<b>테네시</b>	
김경덕 (공 75)	200
<b>텍사스</b>	
황명규 (공 61)	200
<b>필라델피아</b>	
최창송 (의 52)	500
서중민 (공 64)	200
손재옥 (가 77)	500
<b>플로리다</b>	
김중권 (의 63)	400
오석일 (의 64)	200
<b>하트랜드</b>	
이상강 (의 70)	100,000
<b>휴스턴</b>	
진기주 (상 60)	2,000
<b>하와이</b>	
(고) 전영표 (문 55)	1,000

<b>업소록 후원금</b>	
<b>남가주</b>	
강호석 (상 81)	480
서동영 (사 60)	240
김원탁 (공 65)	240
이중모 (간 69)	240
정균희 (의 64)	240
정재훈 (공 64)	240
하기환 (공 66)	240
김경무 (공 69)	240
김원탁 (공 65)	480
김일영 (의 65)	480
김자성 (의 79)	240
서동영 (사 60)	240
신동국 (수 76)	240
최무식 (약 66)	240
아주투어	500
이경희 (인 83)	240
이병준 (상 55)	240
이상대 (농 80)	240
이승훈 (상 74)	240
이태영 (법 60)	480
<b>뉴욕</b>	
김승호 (공 71)	240
김치갑 (의 73)	240
박중호 (의 79)	240
신응남 (농 70)	480
석창호 (의 66)	240
이전구 (농 60)	240
<b>오레곤</b>	
박희진 (농 78)	240
<b>필라델피아</b>	
손재옥 (가 77)	240
<b>장학기금</b>	
<b>남가주</b>	
노명호 (공 61)	10,000
박원준 (공 53)	300
<b>뉴욕</b>	
신종철 (의 59)	100
신응남 (농 70)	400
홍성선 (약 72)	100
<b>미시간</b>	
고광국 (공 54)/	100,000
고국화 (공 56)	
<b>시카고</b>	
김현주 (문 61)	
이용락 (공 48)	3,000
<b>워싱턴 DC</b>	
권철수 (의 68)	200

<b>테네시</b>	
권준희 (가 87)	150
<b>필라델피아</b>	
손재옥 (가 77)	200
<b>하트랜드</b>	
이상강 (의 70)	10,000
<b>Website 광고</b>	
<b>남가주</b>	
김자성 (의 79)	1,000
<b>광고후원금</b>	
<b>남가주</b>	
김양희 (음 77)	900
김자성 (의 79)	1,500
류원 (대학원 74)	1,500
미주재단	13,000
박수경 (생 84)	4,200
서치원 (공 69)	1,500
신동국 (수 76)	300
이경희 (인 83)	300
이병준 (상 55)	1,500
이전구 (농 60)	1,500
하기환 (공 66)	1,000
홍훈정 (음 70)	300
<b>뉴욕</b>	
김승호 (공 71)	1,500
이전구 (농 60)	1,500
<b>모교발전기금</b>	
<b>남가주</b>	
박우선 (공 57)	300
<b>워싱턴 DC</b>	
권철수 (의 68)	100
최재귀 (미 63)	200
한광수 (의 57)	300
<b>오레곤</b>	
김영자 (간 56)	100
<b>필라델피아</b>	
손재옥 (가 77)	200
<b>뉴욕</b>	
신응남 (농 70)	200
<b>인명록비</b>	
<b>뉴욕</b>	
신응남 (인명록 책값)	50

<b>Brain Network</b>	
<b>뉴욕</b>	
신응남 (농 70)	200
<b>시카고</b>	
한재은 (의 59)	300
<b>워싱턴 DC</b>	
오인환 (문 63)	200
<b>필라델피아</b>	
손재옥 (가 77)	200
<b>나눔기금(Charity Fund)</b>	
<b>남가주</b>	
주선희 (문 66)	50
<b>뉴욕</b>	
조태환 (상 56)	100
신응남 (농 70)	300
<b>펜실베니아</b>	
신의석 (공 53)	5,000
<b>필라델피아</b>	
손재옥 (가 77)	200
<b>제 33차 평의원 회비</b>	
<b>남가주</b>	
강미자 (음 62)	
김기형 (상 75)	
김병완 (공 58)	
김홍목 (문 60)	
이중모 (간 69)	
이채진 (문 55)	
민일기 (약 69)	
박중수 (수 58)	
이창렬 (상 67)	
전경배 (의 69)	
조두연 (수 62)	
조정시 (공 60)	
임춘택 (상 68)	

<b>뉴욕</b>	
신정윤 (공 60)	
신응남 (농 70)	
이희만 (간 70)	
조상근 (법 69)	
<b>뉴잉글랜드</b>	
윤상래 (수 62)	
<b>룩키타운틴스</b>	
권순영 (간 69)	
<b>커네티컷</b>	
김창수 (의 54)	
<b>조지아</b>	
김명숙 (약 69)	
<b>미시간</b>	
고광국 (공 54)	
고국화 (공 56)	
조병권 (공 64)	
<b>워싱턴 DC</b>	
박평일 (농 70)	
<b>미네소타</b>	
황효숙 (사 65)	
<b>필라델피아</b>	
김현영 (수 58)	
윤정나	
<b>하트랜드</b>	
이상강 (의 70)	
김경숙 (가 70)	

**알 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15일에 마감  
 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17@gmail.com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2023/7~2024/6, 1년) <input type="checkbox"/> \$100 (2024/7~2025/6, 1년) <input type="checkbox"/> \$200 (2023/7~2025/6, 2년)	<input type="checkbox"/> \$3,000 이상 <input type="checkbox"/>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240 (2024/7월 ~ 2025/6월, 1년) <input type="checkbox"/> \$480 (2023/7월 ~ 2025/6월, 2년) <input type="checkbox"/> \$500 (디자인 추가시, 1년)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Color \$1,500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Black \$1,000 <input type="checkbox"/> 1/3 Size Color \$400	<input type="checkbox"/> \$500 (1년) <input type="checkbox"/> \$1,000 (1년)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입학년도):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 신청서란을 전부 채워주세요. (성함, 영어 성함, 단과대학,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 현주소 등)



<b>남가주   CA</b>	
<b>공인회계사</b>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392	
<b>AAMKO Consulting Co.</b>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b>이강원 공인회계사</b>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b>JUN CHANG CPA &amp; Accounting Corp.</b>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b>STANLEY Cha, CPA</b>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b>임춘택 공인회계사</b>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b>김원철 &amp; 황기주 공인회계사</b>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b>권국원 공인회계사</b>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b>Kenneth G. Yum, CPA</b>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Diamond Bar, CA 91765	
<b>기계 / 기술 / 전자</b>	
<b>Link TV Media</b>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b>Turbo Air, Inc.</b>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b>Tayco Engineering, Inc.</b>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b>마켓</b>	
<b>Han Nam Chain Market</b>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b>변호사</b>	
<b>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b>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b>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b>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b>부동산</b>	
<b>Team Spirit Realty</b>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ce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b>식품 / 음식점</b>	
<b>자연나라 (Jayone Foods, Inc.)</b>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b>북창동 순두부</b>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b>의료 / 병원</b>	
<b>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b>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 siloamchung@gmail.com	
680 Wilshire Pl, #420, Los Angeles, CA 90005	
<b>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b>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Beverly Cardiology Group</b>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b>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b>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b>의료 / 치과</b>	
<b>Choi Gilbert Pharmacy</b>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b>황준오 DDS</b>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b>Seonho Ha Prosthodontics</b>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b>의료 / 동물병원</b>	
<b>Animal Medical Clinic</b>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b>Francis Animal Hospital</b>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b>Richmond Veterinary Hospital</b>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b>Van Buren Animal Hospital</b>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b>유통 / 운송 / 원자재</b>	
<b>SeAH Steel America, Inc.</b>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b>자동차 / 서비스</b>	
<b>A.P.W. 자동차 부품</b>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b>기타</b>	
<b>작가의 집</b>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b>ACCU Construction, Inc.</b>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Tustin, CA 92780	
<b>라 캐나다 한인교회</b>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b>San Bernardo Foot Clinic Inc.</b>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b>뉴욕   NY·NJ</b>	
<b>공인회계사</b>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b>리테일</b>	
<b>New York Golf Center</b>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b>변호사</b>	
<b>Law Offices E. PETER SHIN</b>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F: 718-463-6789	
35-15 159th Street, Flushing, New York 11358	
petershinesq@gmail.com	
<b>금융</b>	
<b>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b>	
윤의규 (상대 82)	
T: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b>의료 / 병원</b>	
<b>백승원 위장내과</b>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b>석창호 위장내과</b>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b>이창석 내과</b>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b>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b>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haeahm@aol.com	
<b>박종호 소아과</b>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b>김치갑 통증병원</b>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NJ 07631	
<b>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b>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b>박범렬 소아과</b>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b>윤세웅 비뇨기과</b>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b>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b>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b>의료 / 치과</b>
<b>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b>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b>의료 / 동물병원</b>
<b>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b>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b>워싱턴 DC   MD·VA·MN</b>
<b>기계 / 기술 / 전자</b>
<b>Drivetech, Inc.</b>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b>EVS, Inc.</b>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b>C &amp;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b>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b>Fairway Asset Corporation</b>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패밀리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b>Wealthy &amp; Wise Family Office</b>
이태영(법대60, 설립자 및 상임고문) 박상우(MBA06, 한국법인 대표)
T: 808-427-8434
10320 Little Patuxent Pkwy 930,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Seoul Korea   Honolulu HI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조지아**  
**건축**

<b>Archipelago Construction LLC</b>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d. Butord GA 30519

**의료**

<b>Abbott Animal Hospital</b>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renceville Hwy, Lilburn, GA 30345

<b>H1C(Health 1 Care) / 김창석내과</b>
강창석 (의대 73)
T: 770-497-4188
10710 Medlock Bridge Rd, Ste 200, Johns Creek, GA 30097

**필라델피아 | PA**

**건축**

<b>THA Consulting, Inc</b>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 / 치과**

<b>Blue Bell Family Dentistry</b>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오레곤 | OR**  
**엔지니어링**

<b>Flonomix Inc.</b>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텍사스**

<b>UNIFAITH Co</b>
최성호 (문리대 58)
T: 281-269-6176
4260 Asteroid Ct. Houston Texas 77068
unifaith@hotmail.com

**세계여행!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아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 213-388-4000**

경험 많고 믿을 수 있는 의사를 찾으십니까

# 석창호 위장내과

뉴욕주 내시경 센터 New York State Accredited Facility  
미국내과 및 위장내과 전문의

- ☑ 위내시경 검사
- ☑ 장내시경 검사
- ☑ 조기 위암, 장암 진단
- ☑ 만성 B형, C형 간염 진단 및 치료
- ☑ 마취과 전문의 상주

석창호(의대 66)  
미국 위장내과 학회 Fellow(AGAF)  
미국 내시경 학회 정회원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애용하는 동문 업소 번창하는 동문 사업**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 제17대 미주동창회

###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중섭(문)  
 고문: 이영일(문) 이채진(문) 박중수(수)  
 박창규(약) 이흥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종(농)  
 남윤호(문)

### 차기회장 황효숙(사)

### 명예회장 노명호(공)

###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차),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강성진(문)

###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최응환(상)  
 IT국장: 최경석(사)/부국장 박문수(공, 워싱턴DC)  
 Database 국장: 장병희(문), 나용화(생)  
 섭외국장: 임항균(사)/함은선(음, 워싱턴 DC)  
 홍보국장: 김승배(음)  
 광고국장: 백정현(음), 백옥자(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레(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이영주(농, 뉴욕)

###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공동위원장  
 박평일(농), 공동위원장

위원: 고 김영구(공), 신응남(농), 이명자(간)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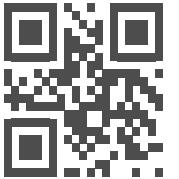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 나눔위원회

위원장: 이성숙(가)

위원: 정태광(공), 유미영(음)

감사: 김영태(미)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4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임춘택(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차기 회장 채규환(법대 69) T: (818)489-7892  
 Kchae100@yahoo.com

###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 79)  
 T: (408)464-4502  
 beomsupkim@gmail.com

###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송오석(공대 91) T: (858) 349-6674  
 osoksong@gmail.com

###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임현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tf@hotmail.com

###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 (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 85) T: (469)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 룩키타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회장 김건호(공대 91)  
 kunhok@gmail.com

###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대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Monica@shaw.ca

###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oon@hotmail.com

###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 미시간 MICHIGAN (Jul~June)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조규성(문리대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차기 회장 정성일(공대 86) T: (301)395-7285  
 jeong05@gmail.com

### 뉴욕 NY/NJ (July~Jun)

김정필(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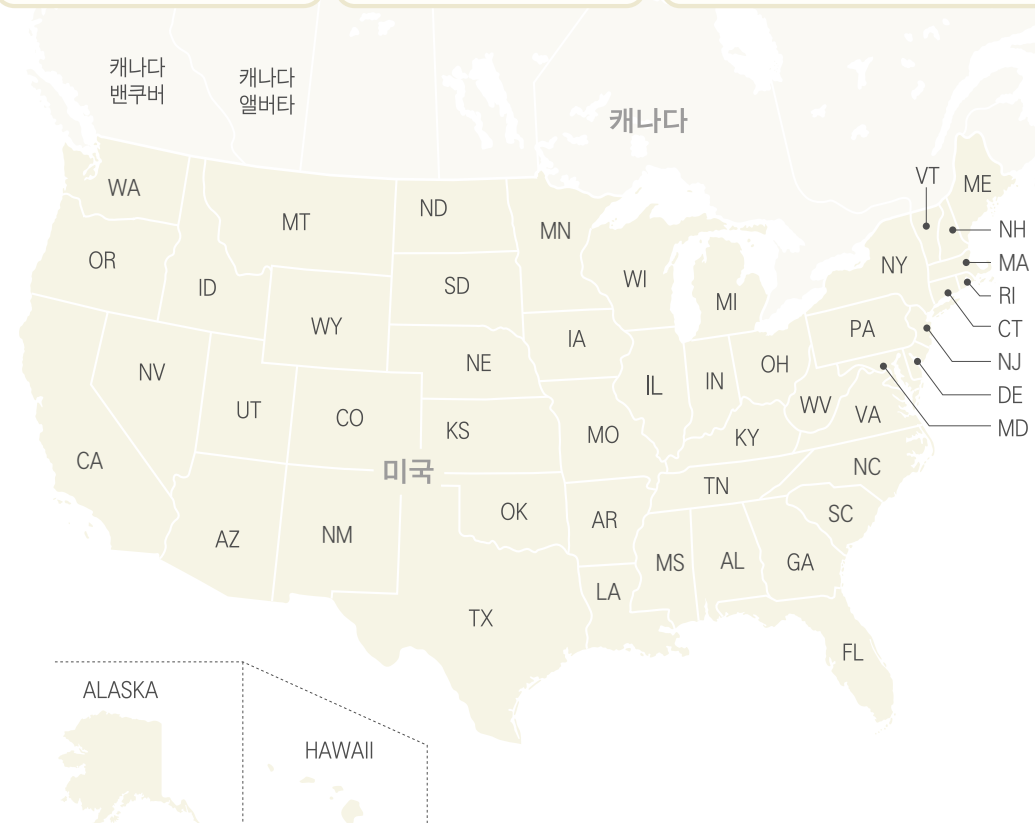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812-8778  
 shparkdream@gmail.com

###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hoejin.sim@gmail.com



###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 조지아 GA/AL/MS (Jan~Dec)

최화진(음대 85)  
 T: (828)242-7150  
 hwajinkimdma@gmail.com

###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 65)  
 T: (561)962-5185  
 yuhn@fau.edu

###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om@alum.utk.edu



**DUO** America  
since 1999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 결혼해 듀오

DUO America LA / NY [www.duoamerica.net](http://www.duoamerica.net)

LA 213-383-2525 NY 212-915-7115

## A.P.W. 자동차 부품

APOLLO PRONTO WAREHOUSE, INC.

서동영 (사대 60)

Tel.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hee Gap Kim, M.D.**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의대 73)

- ☑ Physical Therapy
- ☑ Spinal Injections
- ☑ Acupuncture
- ☑ And More...



김치갑 통증병원 201-541-1111 | [KIMPAIN.COM](http://KIMPAIN.COM)  
535 GRAND AVE, 2ND FL. ENGLEWOOD, NJ 07631



詩: 골프 인생

1. 치는 법을 배움

골프를 치려거든 치는 법을 배우시게  
팔과 어깨 목에서 힘을 주욱 뽑으시고  
백 수wing은 천천히 공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고개를 들지 말고 외아들에 정성 쏟듯  
하얀 공에 정성 들여 다운스윙도 천천히  
스~슬쩍 찰싹 하고 내려치는 느낌이라.

2. 예의를 지킴

골프를 즐기려면 예법부터 배우시게  
이세상에 신사놀이가 이만한 것 또 있을까?  
말조심, 서는 자리, 앞서가고 뒤 서는 것  
내 파트너 잘 칠때엔 칭찬일랑 잊지 말고  
내 파트너 실수할 땐 그 실수가 내것인듯  
내 친구만 이웃인가! 건너 동네도 이웃일세  
호떡집에 불 안났네 말소리는 조용조용  
실례가 많아 지면 친구들이 멀어지네  
나를 슬프게 하는것 중 이것 또한 으뜸이라  
잘못된 모든 일은 그 모두가 내 탓이며  
라이벌은 누구인가! 바로 "나"자신일세.

3. 실패를 극복

골프를 치다 보면 청개구리 "공" 이란놈  
곰배팔이 팽이 친듯 좌측으로 우측으로  
오줌 맞은 두꺼비가 웅덩이로 뛰어 들 듯  
돌 팔매에 놀란 토끼 숲속으로 도망가듯  
골프인생 우리인생 실수 투성이 아니런가!  
관운장도 실수 하여 조조에게 잡혔듯이  
이것들이 그 모두가 병가상사 아니겠소?  
낙담일랑 하지말고 초연함을 잃지 말게  
이번 실수 교훈삼아 새 성공을 기대 하소.

4. 과욕은 금물

핸디를 줄일려면 서두르지 마시게나  
열 여덟개 기회 있고 일흔두번 기대 있네  
조금 더 내 보낼까 팔과 목에 힘을 주니  
"공"이란놈 자~알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누나  
상쾌하게 날아가는 공을 한번 바라볼까!  
머리를 번쩍 드니 샹크 뽑이 나는구나  
한번 실수 두번 실수 누구라고 아니 하나!  
전 흠에서 잃은 것을 지금 당장 찾으려고  
욕심을 내어서는 공이 알고 도망 가네  
"항우"장사 실패하여 "유방"에게 잡혔듯이  
"동탁"이가 실패하여 "여포"에게 죽었듯이  
과욕으로 인한 실패 실수 아닌 "엄보"라네.

5. 운영의 묘

골프를 잘 치려면 나온 거리 남은 거리  
수학 문제 풀어가듯 계산부터 하신 후에  
풀 길이가 길었는가? 장애물은 어디 있나?  
그린 위에 팔라이는 핀을 슬쩍 노려본 후  
분수에 맞는 채를 꺼내 깊은 호흡 한번 쉬고  
마음부터 비운 후에 투~옥 하고 내려 치면  
공이란 놈 날아가서 그린 위에 쫓인다네.

6. 정직함

골프를 즐기려면 이세상에 무엇보다  
정직 보다 중요한 것 그 어디에 있을소냐?  
풀밭에 숨은 공을 발로 차서 꺼내 놀까?  
아무도 안보니까 공을 한 개 놓고 칠까?  
모든 유혹 떨쳐버려 있는 그대로 올려 보세  
자기 것을 계산 하고 내가 나를 감독 하고  
백에라도 단 한번쯤 자기 양심 속일 때엔  
"공"이란 놈 먼저 알고 숲 속으로 도망가네.

7.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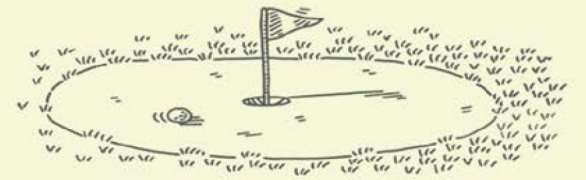
골프를 잘 치려면 운도 또한 기다리세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  
그대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한 후에  
과욕은 극복하고 마음만 차분~하면  
팔과 다리 허리 머리 오장육부 조화 이뤄  
기적 같은 동작들이 이따금씩 나타나서  
날아가는 새도 잡고 흡인원은 못할 소냐?

8. 건강

이렇게 하여 열 여덟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몸에서는 싱그러운 풀 냄새가 향기롭고  
푸른 하늘 맑은 마음 한량없이 상쾌 하네  
엔돌핀은 축적되고 백혈구도 많아지고  
혈액순환 순조로워 혈압도 두~기 떨어져  
허리뼈가 시큰시큰 이따금씩 아픈 증세  
목욕 한번 하고난 후 씻은듯이 없어 졌네.

9. 가정

온종일 나 혼자서 좋은 시간 가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아내 골프 과부 만들었네  
당신도 골프 배워 우리 함께 건강 하여  
검은 머리 파뿌리 되어 한 백년을 살아 보세  
미안한 맘 금치 못해 혼잣말로 중얼 중얼  
운전일랑 조심하고 고속으로 가지 마소!  
천사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우리 새끼  
저녁 밥상 차려 놓고 아빠 오기 기다리네.



NEW YORK GOLF CENTER

www.nygolfcenter.com

HERALD SQUARE



131 West 3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el: 212.564.2255

GRAND CENTRAL



100 Park Avenue (Entrance on 40th)  
New York NY 10017  
Tel: 212.564.0078

CHELSEA PIERS



59 Chelsea Piers  
New York NY 10011  
TEL: 212.242.8899



詩人: 이진구(李典九)

1964년 서울대 농대 졸업  
뉴욕골프센터 그룹 회장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9대 회장  
미동부 한국문인협회 14대 회장

